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부천시 문학의 도시 City of Literature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7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2018.
10.29.(월)
|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AEM000005098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5098

069.6
경18ㅂ

CONTENTS

발간사 4

기획의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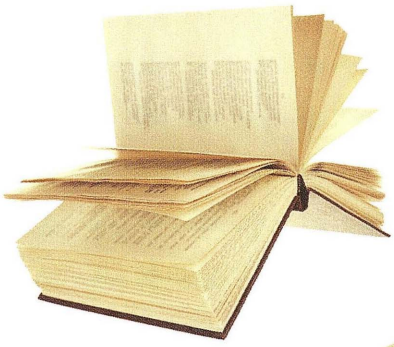
문학 | 기억, 복사골을 노래하다 14
인물 | 복사골에 살다 22
- 변영로 22
- 목일신 54
- 양귀자 28
- 펄 벅 30
- 정지용 36

2018 미래유물전 40
개막식 모습 44

부천을 빛낸 우리결, 부천의 문인들 57
- Part 1. 복사골을 기억하다 58
- Part 2. 복사골에 살다 68
- Part 3.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 98

별 관 전 시 106
미래유물전 준비과정 113
미래유물전 전시홍보물 128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발 간 사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재발견!**

이것이 미래유물전이 **지방문화원에게 발신하는 주파수**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기획전시<미래유물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합니다.
올해 미래유물전은 부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부문)로 지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지역 문인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아카이브 전시로 기획했습니다. 부천의 문인들을 발굴, 발견하는 여정을 통해 지역의 '현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살 수 없는 존재적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경험들이 현재를 만들고 있고 현재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서 존재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기획전시<미래유물전>을 통해 명확히 보이지 않는 미래가 지나간 유물이라는 말과 충돌되는 지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 '여기'를 통해 삶의 문화를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절대적 타자 혹은 절대적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실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내, 외적 관계망을 통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미래의 신비와 과거의 신화가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자유를 향한 개인의 신경망인 '현재'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항상 살아 숨 쉬고 있는 역동적인 생활의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재발견!' 이것이 미래유물전이 지방문화원에게 발신하는 주파수입니다.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향토문화유물전' 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그리고 '지금 여기'를 같이 고민해주신 부천 지역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 전시기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준비해주신 박형재 원장님을 비롯한 부천문화원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부천의뿌리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전시 기획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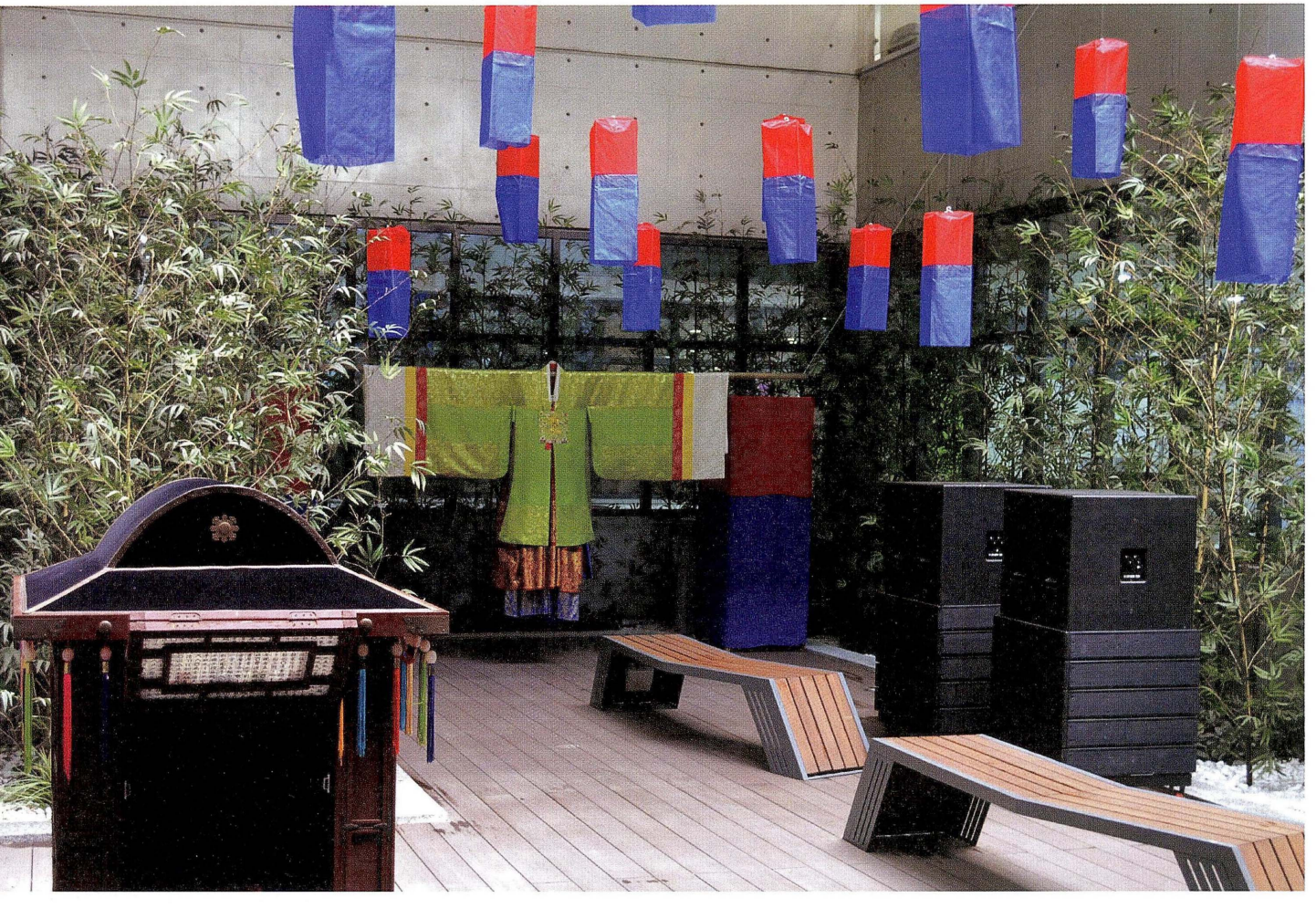
변영로, 목일신, 펄 벅, 양귀자, 정지용 이름만 들어도 벅찬 문인들이 부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천에 한국시간 2017년 11월 1일 새벽, 프랑스 파리로부터 기쁜 소식(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은 흥미로운 것이었다. 복숭아밭이 지천을 이루던 복사골 부천이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그 때부터 부천문화원은 부천시와 부천의 문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심 하던 차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미래유물전" 기획전시를 떠올리며 우리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주관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문학, 참 어려운 콘셉트이었다. 부천문화원 박형재 원장님의 노력으로 "2018 미래유물전" 개최지는 부천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2018년 미래유물전 공식 명칭은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으로 사업명이 정해졌다.

부천문화원은 1년 여 시간을 문학을 주제로 전시 컨셉을 고민하고 있었고, 부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와 다양한 활동으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품격을 높여가고 있었다. 또한 부천의 문인들도 각자의 역량을 직·간접으로 표출한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도시들 중 UNESCO 창의도시는 부천(문학)을 비롯하여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대구(음악), 광주(미디어아트), 전주(음식), 이천(공예), 통영(음악) 등 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전시 기획하며...

부천문화원 사무국은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전시를 위해 일 년의 시간을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큰 틀을 잡고, 직원들 간에 고민과 상상을 에스키스를 통해 현실화 시켰다.

상상의 그림 속에서 그려졌던 필요한 구성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문, 세종대왕 영정, 물지게, 전화 부스, 나무박스, 오래된 자전거 등 수많은 것들, 물론 가장 중요한 문학관련 책, 작가 소장품 및 작고하신 작가 유품 등….

우리의 노력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전시 구성품 구입 및 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역의 4개 문학단체(부천문인협회, 복사골문학회, 부천여성문학회, 한국작가회 부천지부)가 팔 걷고 나서 주며, 순항을 했던 것이다.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부천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창의도시
Since 2017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전시 기획하며...

먼저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을 상징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번에 조명되는 다섯 작가들의 모습과 4개 단체명을 홍보하고, 위엄있지 않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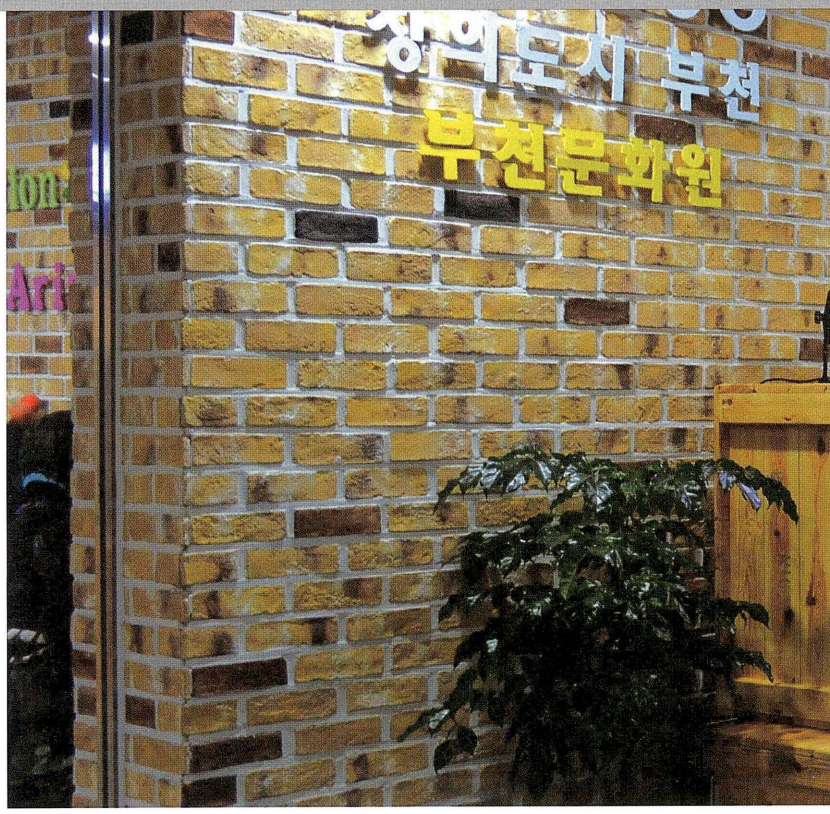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면 첫 작품은 "형설지공"이다. 전화 부스를 이용하여 책을 쌓고 호롱불과 반짝이는 조명은 반딧불을 형상화 하여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입니다
왜 부천이었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우리 부천이 간직해온 훌륭한
근현대 문학적 자산과 꾸준히 추진해온 도서관 · 교육 ·
문화사업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가입이
아니라, 앞으로 창의도시로서 우리 부천의 비전과 역할
입니다.
문학과 창의성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지속
지정
2018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바탕으로 2017년 11월
지정받았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
은성 목일신, 여성작가 최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3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인
단체가 생겨났고, 아들을
ESCO



미래유물전 in 부천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문학|
기억, 복사골을 노래하다

부천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곧잘 서울과 인천의 거대도시에 끼인 불모지대를 거론하곤 한다. 도시가 팽창되면서 인근의 위성도시가 갖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흘러온 인구의 대부분,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살다가는 도시 또는 언젠가 떠나야 할 도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시민 전반에 정주의식이나 정체성이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20여 년 전, 부천은 도시의 산업화와 도시 성장에 한계를 절감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문화도시 부천'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원이 부족한 부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OOK
미래유물展
Since 1994
부천여성문학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Since 2017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10.29.(월)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그 후 인근 도시들이 부천 문화예산의 몇 배를 투자하며 문화도시를 부르짖을 때도 나름대로 문화도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예술인들의 애향심에서 비롯된 뜨거운 창작열을 토대로, 영화, 만화, 부천필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부천문화원, 부천예총,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립도서관, 부천평생학습센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문화예술발전과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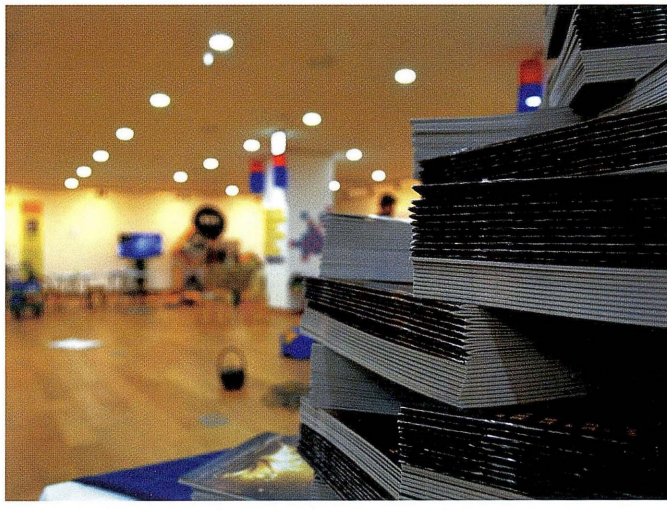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y Network)란 창의 도시들 간의 모임 또는 네트워크로,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y)'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창의성에 주목하며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과 도시들 간의 비경쟁적인 협력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와 창의력을 미래 도시의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2004년부터 국제심사를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를 [문학, 영화, 음악, 디자인, 음식, 민속예술, 미디어] 등 7개 분야의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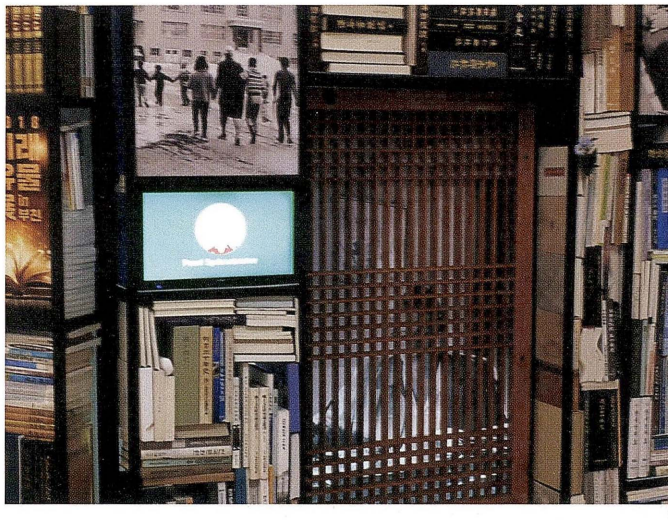
현재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는 72개국 180개 도시, 이 중 문학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에든버러, 더블린, 프라하, 하이델베르크, 바그다드 등 23개국 28개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음악(통영), 미디어(광주), 영화(부산), 디자인(서울), 음식(전주), 공예(이천) 가 이미 선정되었고, 2017년 11월 1일을 기해, 문학(부천)과 음악(대구)가 지정되었다.

부천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은 세계에서 21번째,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의 유수한 문학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문학 도시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는 부천이 간직해온 훌륭한 근대 문학 자산과, 꾸준히 추진해온 도서관, 교육, 문화사업에 대한 중요한 성과이며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문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화, 만화, 에니메이션 등 다른 영역과의 유기적 교류와 삶을 변화시켜 온 문화와 문학의 힘이었다.









소중한 문학적 콘텐츠

빛나는 문인들 (수주 변영로, 정지용, 펄벅, 양귀자, 목일신)을 비롯한 소중한 문단의 별들이 거쳐 간 부천은 작품 속에서 빛나며 현재도 그 문학정신을 기리는 시민들과 문학인들의 열정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문학과 연계한 만화산업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를 운운하며 부족했던 문학콘텐츠를 우려했으나, 그것은 20세기형 문학도시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으로 현대의 도시들이 갖춰야 할 문학적 요소들을 얘기할 땐 부천의 앞서가는 도서관 사업과 만화산업을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부천이 자랑하는 만화와 영화의 근간에는 '문학'이라는 저변학문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부천은 미래를 내다보고 만화에 투자했다. 만화는 탄탄한 문학이 뒷받침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천에 있어 만화는 중요한 문화 산업이다.

각종 도서관 사업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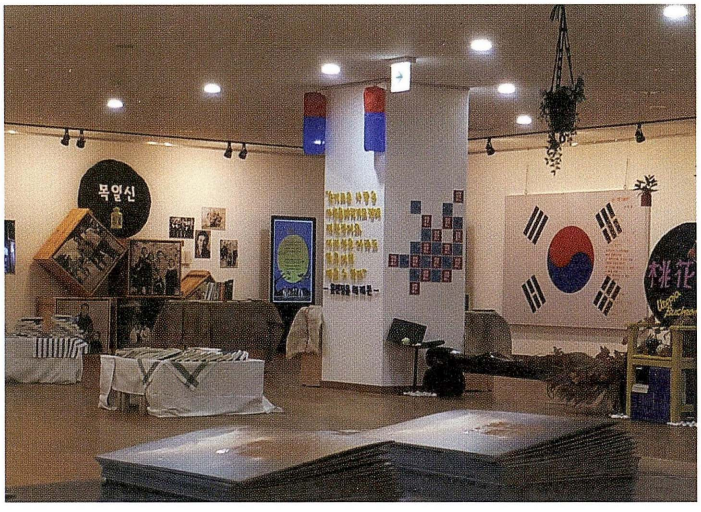
20여 년 전부터 일찍 시작한 도서관의 새로운 시스템은 전국의 모범으로 운영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이미 앞서고 있음이 각종 수상을 두루 하면서 드러났다. 시립 도서관 12개, 공립도서관 21개, 작은 도서관 71개라는 도서관의 거점화는 도서관의 역할이 기존의 열람과 대출의 기능에서 나아가 일찍부터 시민 전체가 세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이 되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문학 강연이 연중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책 프로젝트들을 기획하여 유치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기초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 저변문학의 활성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부천시의 공감 프로젝트, 각 지역별 문화단체들과 연계한 자생적 , 기획적 프로그램들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에 선정되는데 있어, 개별적 성과들이 서로 잘 연계되고 유기적 시스템화 시킨 총 결과물이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미 기본이 되어진 위에 , 부천 아트밸리 사업, 부천문화원의 문화예술강좌, 동아리강좌, 부천예총의 전문예술강좌, 지역축제인 복사골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적 요소 또한 기여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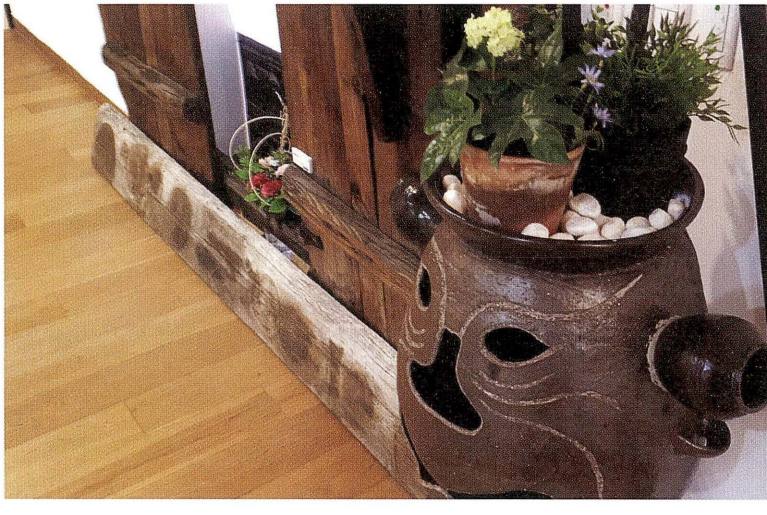
요약하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는 개별적으로 묵묵히 진행되었던 각종 요소들을 정립하여 구슬을 꿰는 큰 작업의 과정으로 준비된 낱낱의 콘텐츠 자체가 부실했다면 이루어낼 수 없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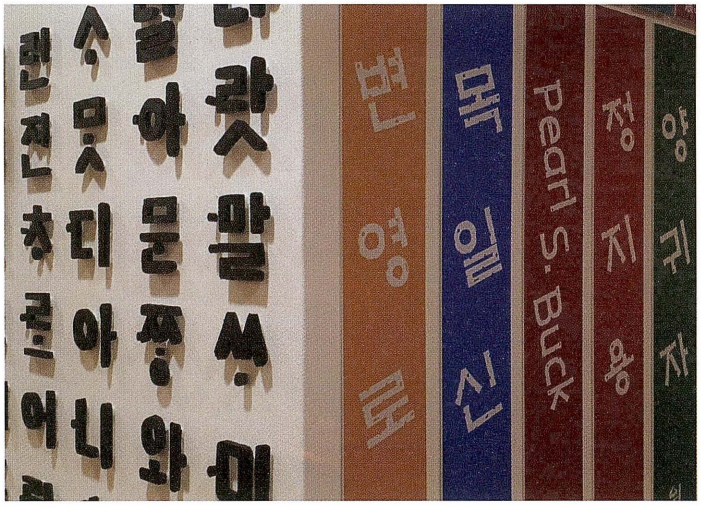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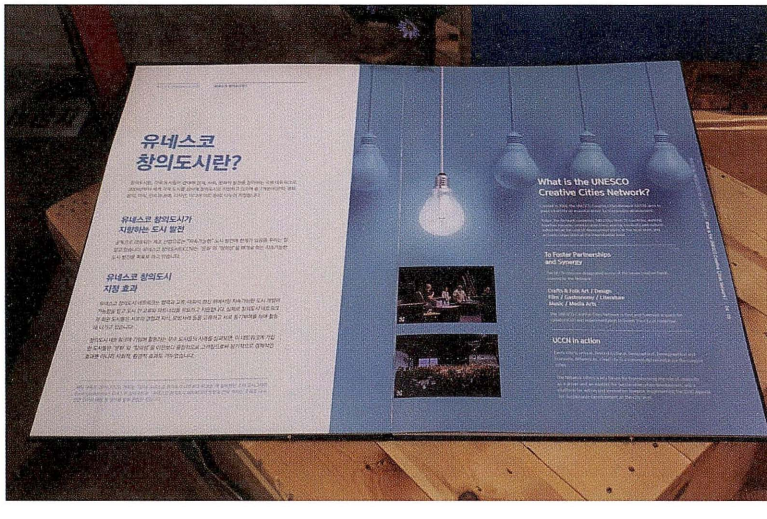
부천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미래'와 '유물'이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만나 하나의 좌표를 찍 듯, 모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기본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 정책과 부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 미래유물전 in 부천이 추구하는 바와 같은 방향에서 시대와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인물|
복사골에 살다

그 때가 언제나 옳니까

수주(樹州) 변영로



시인이며 영문학자인 수주 변영로(1898~1961)는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아호인 수주(樹州, 고려때 부천의 행정명칭)가 말해주듯 고향은 부천이며(본적은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 그의 기념비와 묘소가 오정구 고강동에 있다. 변영로 선생은 우리 민족의 정서 '한(恨)'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뛰어났는데, 특히 대표시 '논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영로 선생의 작품 대부분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민족혼이 잘 표현되어 있다. 선생은 시와 수필, 영문학에도 뛰어났고 교육자, 언론인으로 이름났으며 무덤 앞에는 '생시에 못뵈올 님을' 시비와 탄생 100주년 기념비가 서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또, 중앙공원에는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세운 수주 변영로 시비가 있으며 2018년 10월 26일 삼변(변영만,변영태,변영로)을 기리는 충혼비가 세워졌다.







1999년에는 변영로의 올곧은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공모 수주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 20회를 맞았으며, 심곡천에 변영로교를 세우고 기념하고 있다.

부천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수주 변영로 詩전집』, 『卞榮魯 硏究』, 『韓國 三卞』을 발간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대와 나 사이에
모든 가리움 없어지고,
넓은 햇빛 가운데
옷으로 가리우지 아니한
발가벗은 맨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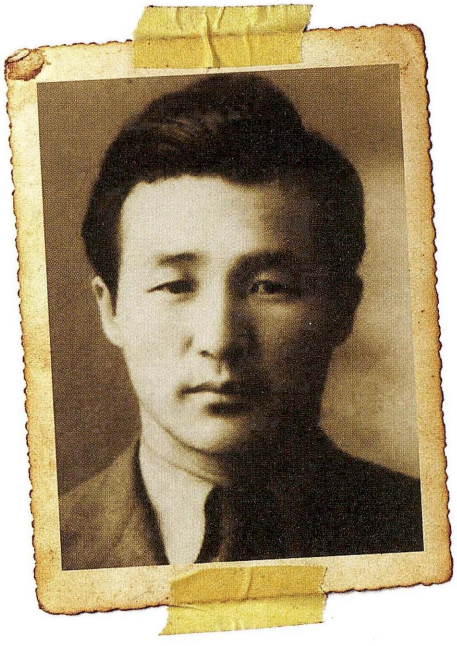
「사랑」과 「믿음」의 불꽃이
낡은 「말」을 사루어
그대와 나 사이에
말없이 서로 알아듣고
채침없이 서로 붙잡고
음욕없이 서로 껴 안을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오, 그대 나의 靈魂 영혼]의 벗인 그대
우리가 그리우는 「그때」가 오면,
「우리 世紀[세기]의 아침」이 오면,
그 때는 그대와 내가
부끄러워 눈을 피하지 않을 터이지요.
두려워 몸을 움츠러뜨리지 않겠지요.
오, 그대! 언제나 그 때가 옵니까?

— 시집 「朝鮮[조선]의 마음」, 1924

아! 목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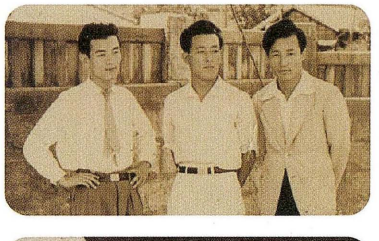
목일신 (睦一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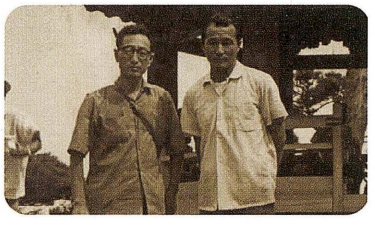


한국의 아동문학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아일보》에 동시 〈산시내〉를 발표하였고, 30여 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많은 동요를 지었다. 대표작으로는 〈누가 누가 잠자나〉 〈자전거〉 등이 있다.

본관은 사천(泗川), 호는 은성(隱星)이며, 김부암(金富岩)·김소영·목옥순(睦玉順)을 필명으로 사용하였다. 1913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26년 《동아일보》에 동시 〈산시내〉를 발표하였다. 1928년 고흥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 신흥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해에 〈누가 누가 잠자나〉를 지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가 1개월간 복역하였다.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시골〉이 당선되었고, 이듬해 신춘문예에서도 《조선일보》에 동시 〈물레방아〉와 가요 〈새날의 청춘〉이, 《내일신보》에 시 〈영춘곡(迎春曲)〉이 잇달아 당선되었다. 1937년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대학[關西大學]을 졸업한 뒤 동화방송에서 근무하다가 1943년 순천 매산고등학교, 1948년 목포여자중고등학교, 1954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1958년 배화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1978년 퇴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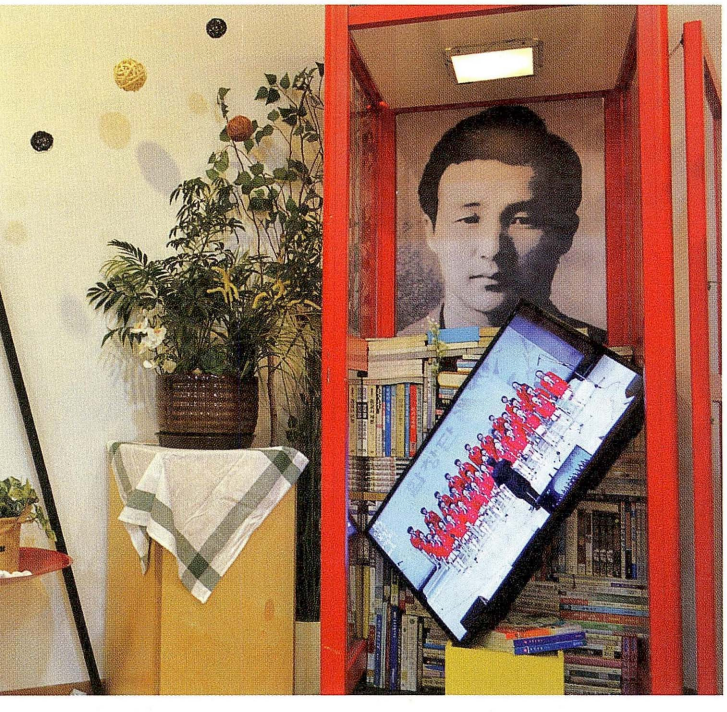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목일신
1913-1986
아동문학가
전남 고흥 출신이지만 1960년
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천시 범박동에서 거주함.
이 무렵 주로 수필을 썼으며,
〈범박동가〉를 짓기도 함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자전거〉, 〈자장가〉
기념사업
• 목일신 둘레길 조성
자전거
찌르릉 찌르릉 빗켜나셔요
자전거가 갑니다 찌르르르릉
저기가는 저영감 꼬부랑영감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찌르릉 찌르릉 빗켜나셔요
자전거가 갑니다 찌르르르릉
오불랑 꼬불랑 고개를넘어
비탈길을 스르륵 지나갑니다.
찌르릉 찌르릉 이자전거는
울아버지 사오신 자전거라오
머나먼 시골길을 돌아오실제
간들간들 타고오는 자전거라오.

〈자전거〉, 〈자장가〉, 〈비누방울〉, 〈아롱다롱 나비야〉, 〈산비둘기〉, 〈참새〉, 〈시냇물〉, 〈물결은 출렁출렁〉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많은 동시를 지었으며, 한국아동문학가협의회 부회장과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이사 등을 지냈다. 1960년 이후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범박리(지금의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으로 이주하여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앙공원에 시비(詩碑)가 세워졌고, 전라남도 고흥군에도 〈누가 누가 잠자나〉 노래비가 세워졌다

부천문화원에서는 2008년 '따르릉동요제'를 만들어 동요 보급에 앞장서다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따르릉문화예술제'로, 올해 새롭게 출범한 (사)따르릉목일신문화사업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며, 부천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한 동시, 동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1913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425번지에서 출생(1월 18일)
1926 고흥공립보통학교 5학년 동아일보에 '산시내' 발표, '자전거' 작사
1928 고흥공립보통학교(현 고흥동초등학교) 졸업, 전주신흥중학교 입학
1929 광주학생사건으로 투옥
1930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요 '참새' 당선
1931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요 '시골' 당선
1932 전주 신흥중학교 졸업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요 '물레방아', 가요 '새날의 청춘' 당선,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영춘곡' 당선
1933 월간 영화시대 현상모집에 시 '낙화 당선, 오케레코드사 현상모집에 가요 '명사십리' 당선 콜롬비아레코드사 현상모집에 '뱃노래', '청춘가' 당선
1937 일본 관서대학 문과 졸업, KBS전신 JODK 근무
1943 순천 매산중 국어교사 부임
1948 목포여중 교사 부임
1954 이화여고 교사 부임
1955 대한일보 현상모집에 국민가요 '대한의 노래' 당선
1956 초등학교 교과서에 '비누방울' 수록, 음악교과서에 자전거, 누가누가잠자나, 자장가, 아롱다롱 나비야, 산비둘기, 참새, 시냇물, 물결은 출렁출렁 등 수록
1957 동요집 '물레방아' 발간(광주 국학도서출판관)
1958 배화여중고 교사 부임
1960 부천시 범박동에 이주
1967 정경자 여사와 결혼
1977 고흥동초등학교에 노래비 제막(누가누가잠자나)
1978 배화여중고교 정년퇴임, 국민포장 수상
1986 부천시 범박동에서 작고(10월 12일)
1992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000 동요집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출간(부천문화원)
2009 고흥문화회관에 시비 제막(자전거)
2010 제1회 고흥 목일신동요제 개최(고흥군)
2011 제2회 고흥 목일신동요제 개최, 목일신동시집 발간(고흥군), 고흥동초교 개교100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고흥동초등인상' 수상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

양귀자 , 『원미동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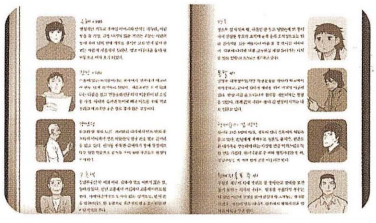


『원미동 사람들』은 1986년 3월부터 1987년 8월까지 발표되었던 11편의 단편을 묶은 연작소설집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을 무대로 1980년대 소시민들의 일상을 그린 책이다.

소설 속의 '원미동'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부천시의 한 동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꿈의 도시에 편입되었거나 주변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80년대를 살아가던, 당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소시민들의 일반적인 상징이다.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이 다른 애잔함을 안고 사는 그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다.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서로 보듬고 그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삼십 년을 넘긴 지금까지 총 111쇄를 기록하며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정 국어교과서에 연작소설 중 하나인 "일용할 양식" 전문이 실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학생들의 필독서가 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불씨>,<마지막 땅>,<원미동 시인>,<한 마리의 나그네 쥐>,<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방울새>,<찻집 여자>,<일용할 양식>,<지하 생활자>,<한 계령>에서 보여지는 삶의 풍속도는 박진감 넘치는 수려한 문체와 깊은 성찰을 담은 문장, 재기발랄한 유머와 소소한 반전으로 주목을 끈다. 문단은 '양귀자' 라는 작가를 천부적 재능을 지닌 의식 있는 소설가이며 1980년대 단편문학의 정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출간 삼십 년이 넘었지만 그 문학적 가치와 작가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부천의 책'으로 선정되어 널리 애독하며 부천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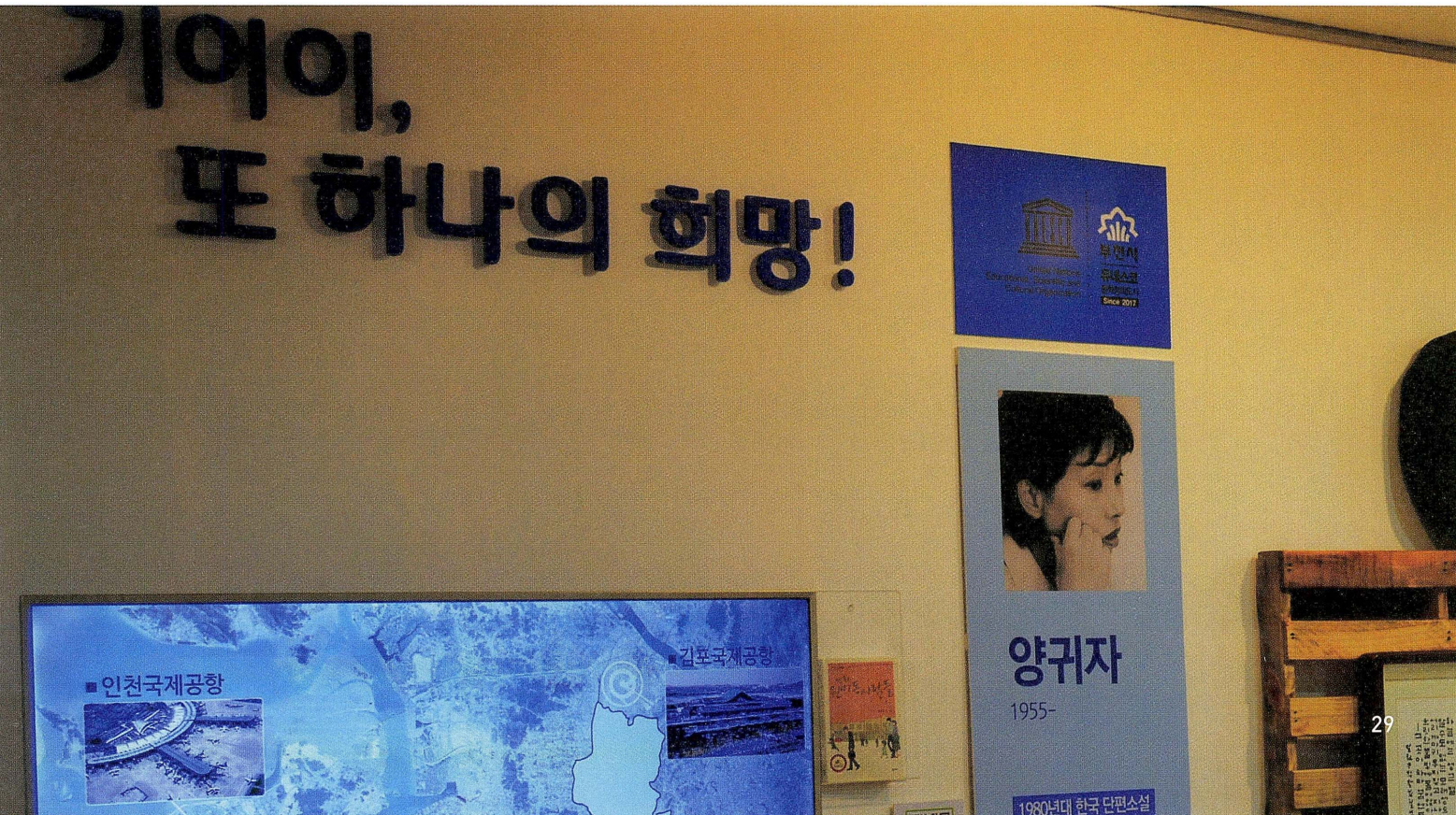
양귀자

1955년 7월 17일 전북 전주 태생.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78년『문학사상』신인상에 단편「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미 닫힌 문」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일상적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소시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을 모아 1985년에 창작집『귀머거리새』를 출간하였다. 이후 작품집『원미동 사람들』(1987),『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1989),『슬픔도 힘이 된다』(1993),『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1993) 등과 장편소설「바빌론 강가에서」(1985),「희망」(1990),「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중편소설「숨은 꽃」(1992),『천년의 사랑』(1995),『모순』(1998) 등을 간행하였다.유주현문학상(1989), 이상문학상(1992) 등을 수상하였다.

『만화 원미동 사람들』

부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만화의 도시이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만화는 문학의 재창조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소설『원미동 사람들』은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로 형태를 바꿔가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만화로는 출간되지 못했었는데, 2012년 변기현 만화가에 의해 총 2권으로 출간되었다.

서울에서 밀려나 원미동에 살게 된 소시민들의 삶의 단면을 그려낸 드라마만화로 사람과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나누는 행복을 보여준다. 1권에 <멀고 아름다운 동네>, <불씨>,<마지막 땅>,<원미동 시인> 이 2권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찻집 여자>,<일용할 양식>,<지하 생활자> 가 실려있다.



펄 벅

[Pearl Sydenstricker Buck]

(1892.06.26. ~ 1973.03.06.)









탄생

19세기 말 중국에서 10여 년 간의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 압솔룸 시던스트라이커(Absalom Sydenstricker)는 만삭의 아내 캐리를 데리고 웨스트버지니아 힐스버러로 돌아왔다. 남북전쟁 당시 남과 북 사이에 끼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지역인 힐스버러는 캐리의 친정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캐리 시던스트라이커는 딸을 낳았다. 첫째 아들 에드거 이후 중국에서 낳은 세 아이를 모두 잃고서 미국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였다. 부부는 딸아이의 이름을 펄(Pearl) 이라고 지었다. 이 딸아이는 훗날 소설 [대지]를 써 미국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하였고, 동양과 서양, 여성과 아이, 인종을 아우르는 열정적인 사회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푸른 눈의 중국인으로 산 반평생

생후 3개월 만에 아기 펄은 그녀의 부모와 함께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다. 아버지 압솔룸 시던스트라이커가 다시 중국선교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펄은 중국에서 자랐다. 펄에게 생후 3개월 만에 떠나온 미국은 그저 모국일 뿐 피상적인 이미지의 나라였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중국이 발 디딜 수 있는 굳센 땅으로 느껴졌고 중국 사람들의 삶이 더욱 친숙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아무리 그녀가 중국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중국을 가까이 느낀다고 하여도 중국인들에게 그녀는 벽안(碧眼)의 서양

인이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 압솔룸 시던스트라이커는 근본주의 기독교를 포교하는 엄격한 선교사로서 중국인들과 자신들의 삶을 확실히 분리하였다. 서양인으로서의 자각도 완전하지 못하고 중국인으로 동화될 수도 없는 사춘기를 보낸 펄은 18세에 어머니 캐리의 강력한 원조로 미국 랜돌프-메이컨 여대에 진학했다. 이때의 4년이 그녀가 1934년 중국을 완전히 떠나기 전 가장 긴 시간 미국에 머문 기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펄은 3년 뒤 미국인 농학자인 로싱 벅(John Lossing Buck)과 결혼하고 벅이라는 성을 얻었다. 펄 벅의 남편 로싱 벅은 여성에게 다감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는 열정적이었지만 아내를 이해하고 가정에 충실한 스타일의 남편이 못됐다. 선교 일에만 열중하며 가정을 나몰라라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펄 벅은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결혼생활에 절망했다. 더구나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캐롤은 펄 벅의 절망을 더욱 가중시켰다. 캐롤은 정신지체아였다. 펄 벅이 딸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닐 때 남편 로싱 벅은 아내와 딸에게 무심했다. 남편의 무관심과 딸로 인한 죄책감과 고통을 잊기 위해 펄 벅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인권운동

미국에 돌아온 후 펄 벅은 본격적인 집필활동과 더불어 작가로서의 명성을 기반으로 사회 인권운동에 전념하게 된다. 비록 아버지 압솔룸의 교조적 선교 활동에 염증을 느끼고 남편 로싱 벅의 계몽사상을 비웃었지만 그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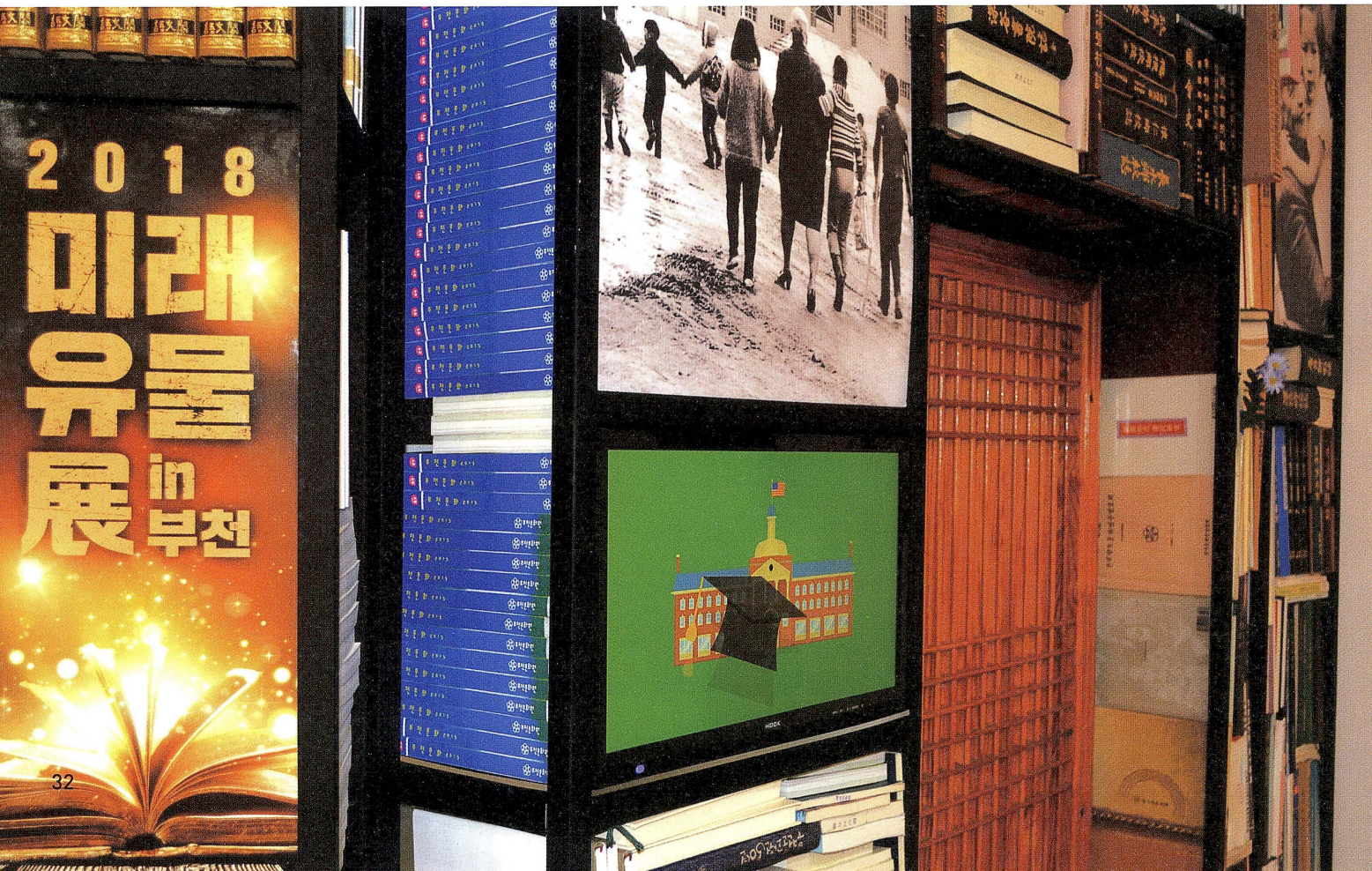


40여 년 간 선교사의 딸로 계몽운동가의 아내로 산 사람이었다.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사회활동은 그녀의 운명이었다. 작가의 조용한 은둔생활은 그녀의 인생에 맞지 않았다. 의욕적인 글쓰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는 사회활동에 더 많은 정열을 쏟았다.

그녀는 1930년대 미국 내 인종 차별에 반기를 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1942년에는 민족 간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동서협회(The East and West Association) 설립하였고 1949년에는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웰컴하우스(Welcome House.Inc)를 창설하였다. 그녀도 이 기관을 통해 7명의 피부색이 각기 다른 아이를 입양하였다.

입양한 아이들과 함께한 만년의 펄 벅

또한 미군 병사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주둔한 뒤 생긴 미국계 사생아들을 돕기 위해 1964년 펄 벅 재단(Pearl S. Buck International)을 세웠다. 이 재단은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의 중국계 아내 호미리와 친분이 있던 펄 벅이 소설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버려진 미국계 사생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만든 것이었다. 펄 벅 재단은 한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개의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현재는 혼혈 아동뿐만 아니라 고아, 신체 장애우 등 사회에서 고통 받는 소외 아동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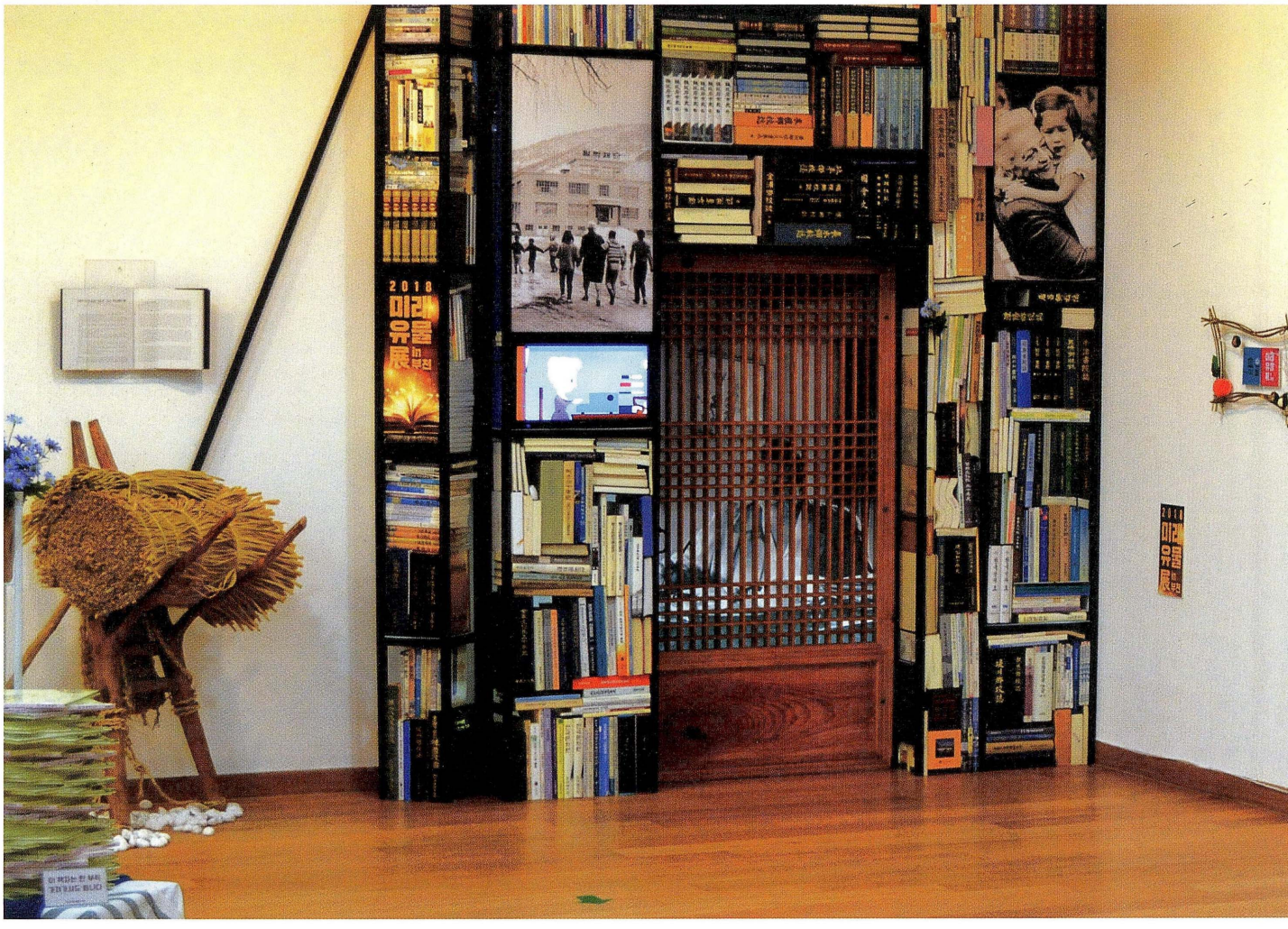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펄 벅은 언제나 열정적이었으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장섰다. 그녀는 미국의 인권과 여권운동, 매카시즘 시기의 마녀사냥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기꺼이 논쟁에 참여했으며, 신념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남성 평론가들은 펄 벅의 문학적 성공이 그녀의 주 독자층인 여성 독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며 펄 벅이 과대평가된 작가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차별에 고통 받던 아동들이 그녀가 만든 펄 벅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펄 벅이라는 이 불세출의 작가이자 사회인권운동가의 삶을 더욱 값지게 해주고 있다.

부천과의 인연

펄벅기념관은 원래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있었던 자리로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친분이 있었던 펄벅에게 부지를 기증해서 이곳에 펄벅재단과 소사희망원을 세우고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고아와 혼혈아동들을 돌보던 곳이다. 당시 소사희망원을 거쳐간 아이들이 2천 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펄벅은 미국인이었지만 태어나서 3개월만에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를 했다. 82평생 동안 40년을 중국에서, 나머지는 미국에서 살았다.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동과 전쟁고아를 위해 심곡본동에 한국펄벅재단과 소사희망원을 세우고 1960년부터 1969년까지 8번 한국방문을 통해 당시 소사희망원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셨다고 한다.



펄벅은 살아온 환경이 중국, 미국 등 다양해서 다른 문화들의 만남에서 오는 충돌이나 이해에 대해 많은 작품을 썼다. 그중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살아있는 갈대』『새해』『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 등이 있다.
이 중『한국에서 온 두 아가씨』는 한국에 오기 전인 1951년도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한 선교사 2세인 데보라와 메리가 주인공이며, 이 외,<살아있는 갈대> 혹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가 1963년 작이다.

펄벅은 한국에 올 때 한번에 15일 이상 강연도 다니고 대통령(윤보선)도 만나고 했는데, 당시 펄벅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국을 다루는 소설은 언제 써줄거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그럴 대마다 펄벅은 언젠가는 쓰지 않겠느냐며 대답을 했는데, 그 시간이 4년이 걸린 것 같다.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탄생된 작품이 <살아있는 갈대>이다.

이 작품 서문에 그 유명한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같은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책 표지에 아리랑의 가사가 쓰여져 있기도 하다. 이 책이 미국과 한국 동시에 발간 되었는데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펄벅 최고의 걸작이라고 찬사가 이어졌고, 바로 한국에서 당시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왕록 교수님에 의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당시 판매량이 꽤 되었다고 한다.



에피소드

펄벅이 한국에 처음 방문을 하고 여러곳에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까지 만나고 했는데, 한번은 경주에 갔다가 불국사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풍경에 취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화가가 되었을 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히, 펄벅이 한국에 왔을 때 한 명의 농부를 만나는데, 그 농부가 해질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소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펄벅이 왜 힘든데 소를 타고가지 않냐고 했더니 농부는 오늘 계속 일하느라고 힘든 소인데 내가 타고가면 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펄벅은 한국인의 마음에 감동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한다. 미국에는 없는 정서이니까... 이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펄벅이 한국에 반하게 된 것 같다.

최근 부천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펄벅심포지움, 펄벅국제심포지움, 펄벅문학유산콘서트 등 다양한 펄벅의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서울신학대 함춘호 교수와 함께 서울신학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살아있는 갈대><새해>를 읽고 직접 작사, 작곡한 14곡이 최근 첫 발표를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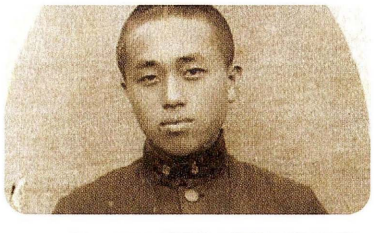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鄭芝溶)



부천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는 정지용과도 인연이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정지용은 공소만 있던 부천에 신부를 모셔왔고 이를 본당으로 승격하여 부천 최초의 성당을 창립하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월북했다는 혐의로 정지용의 작품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전면 해금이 되었는데 현재 그가 살았던 소사본동 89-14번지에는 기념표지가 세워졌었고 부천중앙공원과 소사본동사무소 앞에는 시비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 기념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정지용의 시 '향수'는 2003년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비롯해 고등학교 작문교과서, 문학교과서 등에 실렸고 '고향'은 1991년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바다'는 1997년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호수'는 2001년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유리창'은 2003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상권에 실렸다.







부천과의 인연

모국어를 현대화시킨 최초의 모더니스트 정지용(鄭芝溶)시인의 詩「향수(鄕愁)」는 국민 시라 일컬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애송되는 작품이다.

1902년 충북 옥천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했지만, 부천과의 인연이 있고, 실제 소사동에 거주했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때 서울 소개령으로 인해 부천으로 이주했었다는 사실이 연보에 나와 있지만, 정작 부천으로 이주한 삼 년 동안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던 터였다.



휘문고보 1년 후배이자 일본 동지사대학을 다닐 때 절친이었던 박제환의 부친 소유였던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현, 소사본동 89-14)에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삼 년 동안 살면서, 소사성당을 짓는 일에 전념했다. 이러한 사실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구자룡 시인이 밝혀냈고, 정지용 시인의 큰아들 정구환 씨를 만나 선생이 살았던 집터까지 확인한 후, 1993년 5월 30일 표석을 세워 기리며 오늘에 이르렀다.

카톨릭 신자였던 정지용 선생은 공소만 있던 부천에 신부를 모셔왔고 이를 본당으로 승격하여 부천 최초의 성당을 창립하는데 앞장을 섰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월북했다는 혐의로 천재시인 정지용 시인의 시는 읽히지 못하다가, 1988년에 이르러서야 전면 해금이 되었다.

시 '향수'는 2003년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비롯해 고등학교 작문교과서, 문학교과서 등에 실렸고 '고향'은 1991년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바다'는 1997년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호수'는 2001년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유리창'은 2003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상권에 실렸다.

해금이 되면서 주옥같은 정지용 시인의 시는 널리 읽히지만 납북 후 시인의 행적이나 정확한 사망날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추정뿐이다.

현재, 선생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기념사업들은 학계와 문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그룹에 선정된 부천시의 대표문인 중 한 사람으로서 부천에서도 새롭게 선생의 문학세계가 조명되고 있다. 선생이 거주했던 소사동 효현로 일대를 "정지용 향수길"로 조성 예정 등, 부천중앙공원과 소사본동사무소 앞에 있는 시비와 함께 지용 선생의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학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문학세계

정지용 시인은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을 받는다. 김기림 시인은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의 간극을 초월해 현대시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세련된 문장과 탁월한 감각은 천재시인이라는 찬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정지용 시인의 문학적 특징은, 감정의 노출을 절제하고 대상묘사의 이미지즘 시 세계에 전통적인 기승전결 구성으로 독특한 산문시 형태를 보여주며, 시어의 조탁(彫琢)과 명징한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초기] 1920년대 초~1933년

휘문고보 졸업과 휘문 교비생으로 일본 교토(京都) 동지사(同志社)대학 유학시절이 이에 속한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미지를 중시하면서도 향토적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하였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듬은 절제된 묘사로 지금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향수'(1927), '카페 프란스(1926)', '바다(1925)' '유리창(1929)' , '고향(1932),','열차(1932)' 등의 작품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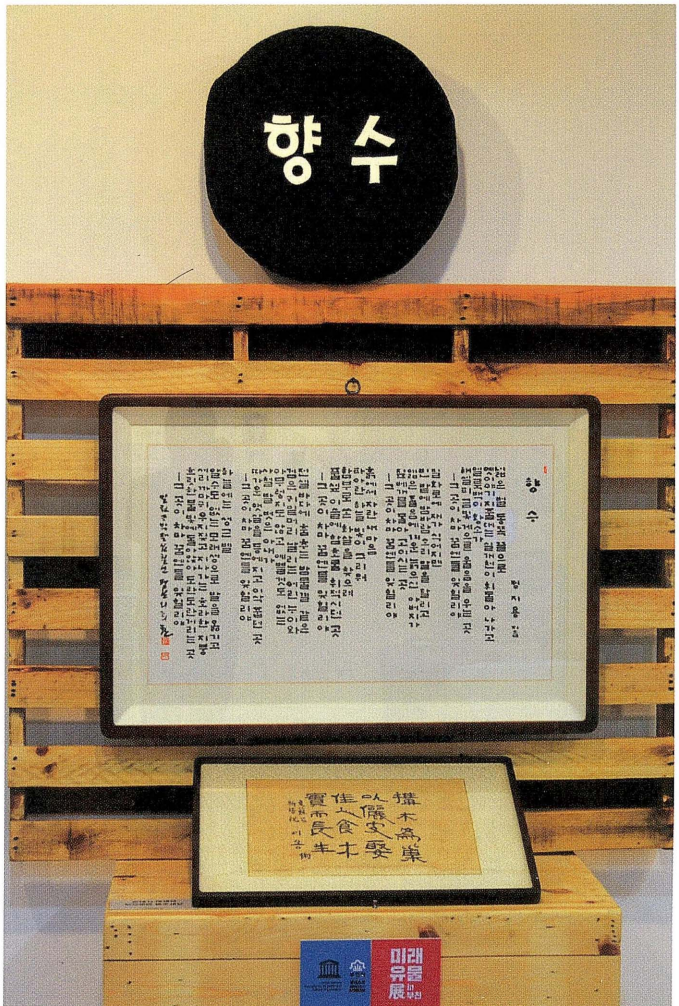
[중기] 1933년~1935년

<카톨릭 청년>지의 편집고문을 맡으며, 카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여러 편의 종교적인 시편들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울(1934)','또하나 다른 태양(1934)', '그의 반', '불사조','자른 하늘' '홍역','비극' 등 작품들이 있다.

[후기] 1936년 이후 ~

1930년대 후반은 시와 평론, 수필 등 약 30여 편을 발표하는 한편 블레이크와 휘트먼의 시를 번역하고, 전통적인 미학에 바탕을 둔 자연시를 발표하였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였다. 자연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산수시(山水詩)라고 불리기도 한다.

1944년 2차 대전 말기 서울 소개령으로 부천 소사읍 소사리로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한 후,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복직하며 1946년 서울 돈암동으로 이사하였다.'구성동','인동차', '백록담(1941)', '장수산' 등의 작품들이 있다.





정지용 시인 年譜

1902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 40번지에서 출생.

1910 4월 6일 충북옥천공립보통학교 입학.

1913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사는 송재숙과 결혼.

1914 옥천공립보통학교를 4회로 졸업. 학교를 마치고 정지용은 1918년 휘문고보에 진학하기 전까지 4년 간 집에서 한문을 공부.

1918 사립 휘문고등보통학교 입학. 재학 당시 문우로는 3년 선배인 홍사용, 2년 선배인 박종화, 1년 선배인 김윤식, 동급생인 박제환과 1년 후배인 이태준 등이 있었다. 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했으며 집안이 넉넉지 못하여 교비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이때부터 文才를 발휘. <요람>동인 결성.

1919 3.1운동의 후류증과 학내 문제로 무기정학을 받았다. 복학.12월 <조광>지 창간호에 소설『三人』발표.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첫 발표작이다.

1922 휘문고보 졸업. 4년제 졸업 후 학제 개편. 5년제로 되어 5년으로 진급.

1923 휘문고보 5년제 졸업. 대표작「향수」를 씀.

1924 동지사대학 시절. 시「석류」,「Dahlia」,「홍춘」,「들녁사내」등 씀.

1926 카페 프란스 등 발표.

1928 옥천군 하계리 40번지 자택에서 장남 구환 출생.

1929 3월 동지사대학 영문과를 졸업. 9월 모교인 휘문고보 영어과 교사로 취임.종로구 효자동으로 부인과 장남을 솔거하여 옥천에서 이사 옴.

1930 시작활동이 활발하던 때, 시문학동인에 가담하여 시작품 발표. <조선지광>,<시문학>,<대조>,<신소설>, <학생> 등에「거울」,「유리창」등 20여 편 발표.

1931 12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22번지에서 차남 구익 출생

1933 7월 종로구 낙원동 22번지에서 3남 구인 출생. 6월에 창간된 <카톨릭청년>지의 편집 고문으로 활동.

1934 서울 종로구 재동 45의 4로 이사. 12월 재동 자택에서 장녀 구원 출생.

1935 10월. 시문학사에서 첫시집『정지용 시집』간행.

1936 3월에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 창간호가 간행. 여기에「流泉哀傷」발표.

1937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의 64호로 이사.

1939 8월 창간된 <문장>지에 이태준과 함께 참여하여 시부문 심사위원이 됨. 조지훈,박두진,박목월 등 많은 신인을 추천. 5월 20일 북아현동 자택에서 부친 사망.

1941 9월 문장사에서 제2시집『백록담』간행. 이 무렵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

1944 2차세계대전 말 서울 소개령으로 정지용은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로 가족을 솔거하여 이사. 소사성당 짓는 일에 전념.

1945 해방과 함께 숭문중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10월에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옮겨 문과과장이 됨.

1946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11번지로 이사.5월 모친 사망.

1947 8월 경향신문사 주간직을 사임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복직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사로 출강.

1948 2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녹번리의 초당(은평구 녹번동 소재)에서 소일. 다수의 평론과 수필, 기행문 발표.

1950 6.25 전쟁 당시 녹번리 초당에서 납북

1988 전면 해금

2018
미래유물전

'미래'와 '유물'은 가장 먼 단어다. '시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미래'와 '유물'은 상호 충돌하면서 함께 나아간다. 삶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흔적에 가치를 두게 되고, '오늘'이라는 정점에서 그 가치를 '미래'에 이양한다. 미래는 과거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공통으로 취하게 되는 그 무엇을 찾아 발견과 선별을 반복한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 가치 있는 유물들이 산재 돼 있고, 경기도는 그것들이 31개 시· 군 문화원과의 네트워크 구성 아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무형의 유산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

미래유물전은 경기도 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유산을 발견하고 전시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유산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그 과정에 유·무형의 역사적 유산을 새롭게 축적하는 여정이다.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부천시는 수주 변영로, 펄벅, 정지용, 은성 목일신, 양귀자 등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각각의 테마를 가진 다양한 도서관 인프라, 그리고 문학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화산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 산업 발전, 시민저변문학의 확대를 기초로 2017년 11월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에 지정되었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자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지금도 널리 불리는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한국 대표 아동문학가 은성(隱星)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 원미동사람들의 양귀자 작가, 한국모더니즘 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 등 수많은 문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3년 부천시가 시(市)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발전과 함께 걸출한 문인이나 작가지망생의 활발한 활동 속에 여러 문학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문학행사와 동인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부천)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기까지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펄 벅 기념관
Pearl S. Buck
부천의뿌리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10.29.(월)
~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변영로
桃花亭
Utopia
Buchrom
展



2018 **미래유물전** 오픈 행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Since 2017
Pearl S. Buck
부천의뿌리
2018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의회
부천시의회


송내어울마당
부천문화원
한국예총부천
2018
2018.
10.29.(월)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미래
유물
展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꿈앤들 잊힐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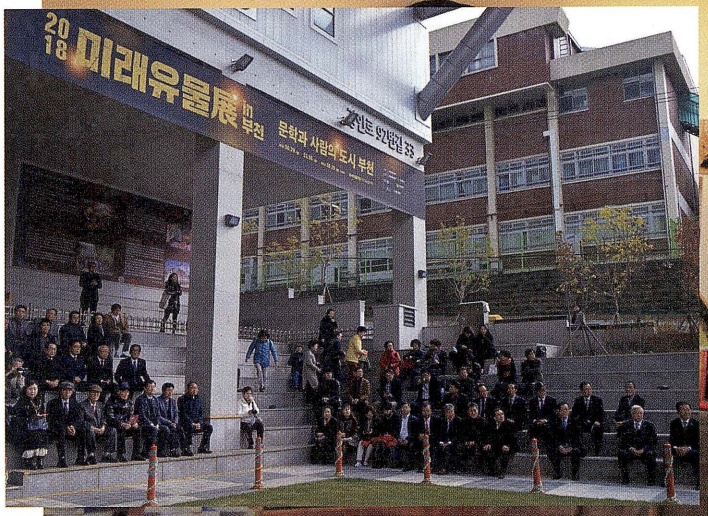



아리솔갤러리
Bucheon Cultural Center
SINCE1966.3.14
미래
유물
展 in 부천
UN


문학과 사람적 도시 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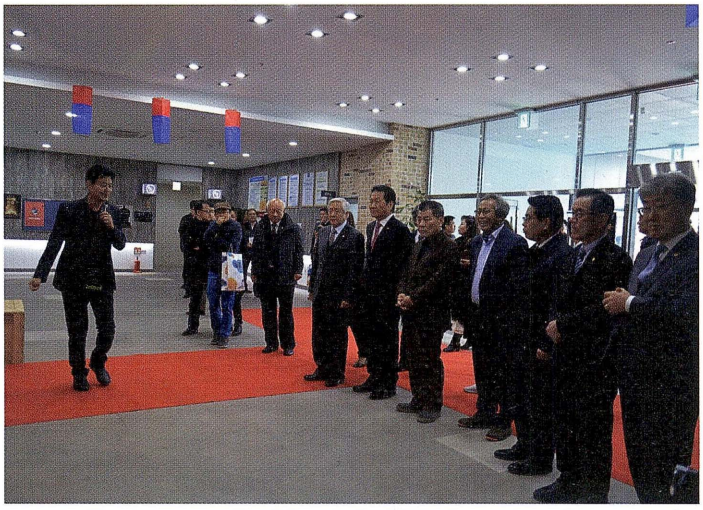

ARTE Chamber Orchestra
백산수
Jenniferaom


부천 Culture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2013
미래
유물
展
in
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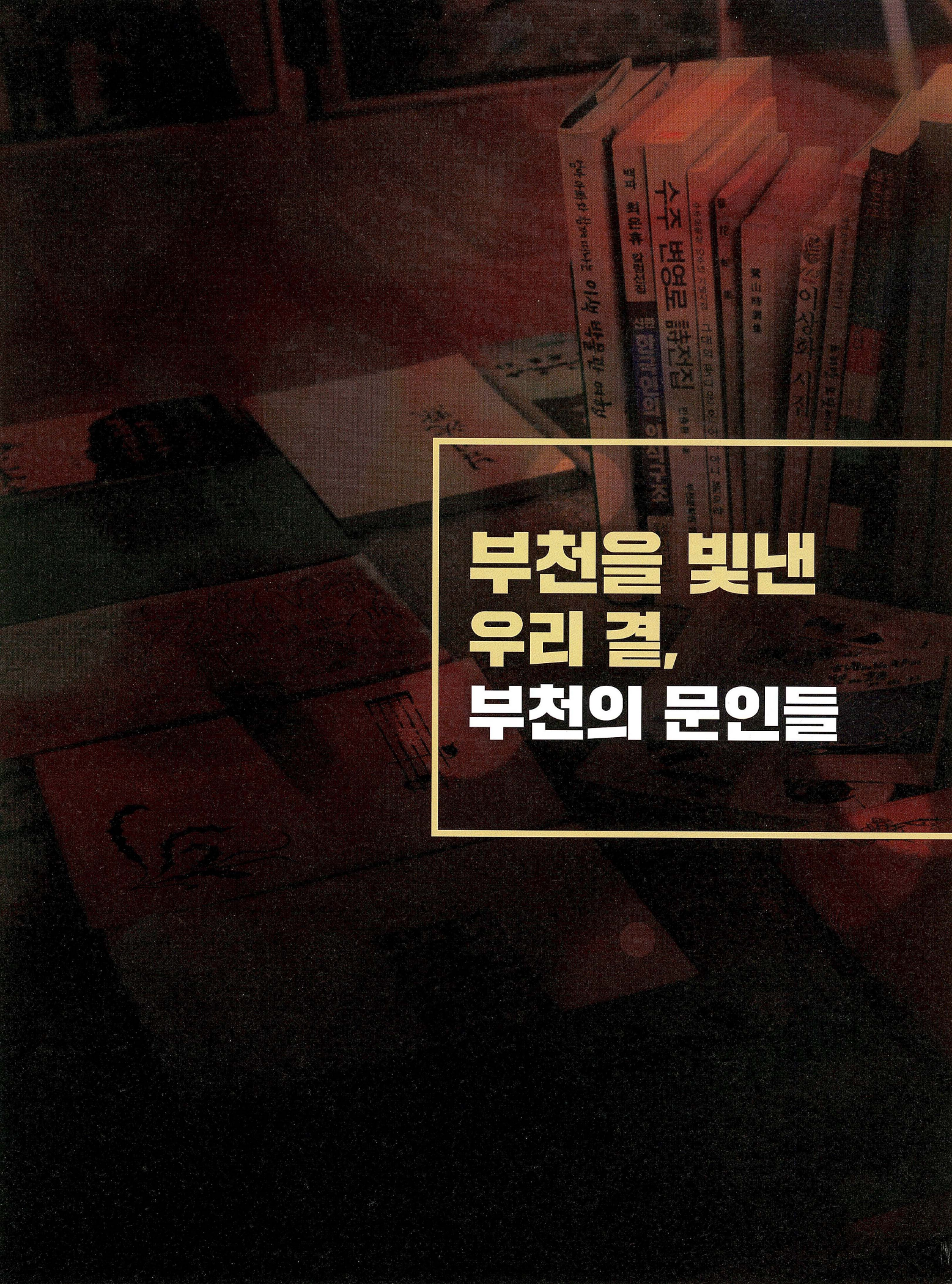



부천문화원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때가 언제나 옵니까
변영로
1897-1961
변영로
桃花亭
Utopia
Bucheon
展


꿈나라
부천문화원
20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2018 인문주간 특별전시회:
가족 공감의 기억재생
18. 10. 30 (화)
- 11. 09 (월)
10:00 - 17: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지하1층)
스킨십이 전혀 없는 무뚝뚝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와락 끌어안아서 당황함과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안아주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입니다
왜 부천이었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우리 부천이 간직해온 훌륭한 근현대 문학적 자산과 꾸준히 추진해온 도서관 · 교육 · 문화사업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가입이 아니라, 앞으로 창의도시로서 우리 부천의 비전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유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자유
바탕으로 2017년 11월
지정받았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선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많



부천을 빛낸 우리 곁, 부천의 문인들

Part 1.

복사골을 기억하다

돌아가신 작가들과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함께 조화 있게 배치하여 복사골을 기억하며,
노래한 그들을 예우하고, 헌신한 마음을 표현 하고자 했다.






주요 작품
〈연꽃홍수〉,
〈크크라는 갑〉.
주요수상경력
*전국계간지작품상 수상
등단
소설 등단
지부 회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발행되었다.
권효남, 김가배, 김재숙, 김철기, 박정자, 송영심, 이명숙, 이서림, 정정하, 진현주, 차영숙, 황연옥 시인 등 모두 詩 장르의 작품이었으며, 회원들의 문학에 대한 강한 열의는 여성들의 강인하고 단결된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 냈다.
이후 2001년 4대 박정자 회장이 부천여류문인회 명칭을 부천여성문학회로 바꾸고 발간되는 『부천여류문학』의 제호를 『부천여성문학』으로 바꾸었다. 『부천여성문학』은 올해로 25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
◆ 활동사항
부천여성문학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합평뿐만 아니라 초대작가 초청강연, 시화전, 시낭송회, 문학기행, 해외문화탐방, 기타 전시회 관람 등 대내외적 활동 등의 노력을 통해 문학적 실력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 '타 도시와의 문화교류' 란 타이틀로 춘천여성문학회와의 교류 (황연옥 회장) – 문학토론과 작품낭송회
*2012년~2015년 중국 길림성의 동포문학, 뉴욕 한인문학회, 일본 히로시마 교포문학등과의 작품 교류
*미국 뉴욕 K라디오 공개방송 출연 – 진행 : 김은자 시인(현 뉴욕 K-RADIO 문학프로 '시쿵' 진행자)
*모리스 드 블라맹크展 등 미술전 및 기타 공연 관람 등을 통한 詩的감각 및 실력향상 도모
미래 유물展 in 부천
손대지 마세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002~ 조신섭 지부장
004~ 김가배 지부장
008~ 박영봉 지부장
014. 2. 27. 고경숙 지부장
17. 2. 23. 박희주 지부장
7. 2. 23. 국세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표자변경)
7. 3. 23. 한국문인협회 박희주 지부회장 인준
. 5. 5.~7. 복사골예술제 문학의 축전 부천문학 67호 발간
. 9.~11. 2017 작가와의 만남 4회 강연 실시
11. 1.~7. 회원시화전 및 시낭송회 개최
12. 15. 부천문학 출판기념회(68호)
5. 4.~7. 제34회 복사골예술제 '문학의 축전' 개최
4. 30. 〈부천문학〉 69호 발간
동
전, 디지털백일장, 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 회원시화전
우수작 전시, 〈부천문학〉 발간
한국예술문화단체총
한국문인협회 부천지
1956년 부천군 소사읍
부천최초 시화전 및 다
2003년 부천시 중앙공원
주요 작품
〈팽창현탕〉, 〈흙과 꽃과의 노래〉, 〈
〈임 따라 강 따라〉, 〈갈밭의 분노〉, 〈
〈영군번의 병사〉, 〈공뱅이의 뒷걸음질
〈여자가 담을 넘을 때〉, 〈복사골 비망
주요수상경력
•1977년 제1회 인천문학상 수상
•1981년 제2회 부천시 문화상 예술부문
•1983년 제5회 부천예술문화상 수상
•1985년 제24회 경기도문화상 예술부문
•1988년 제3회 한국예술문화상 공로상
•1997년 제5회 경기도문학상 수상
•1998년 제6회 경기예술상 문학부문
문예지 「문예
복숭아
문화








부천
구 자 룡 시인 (1945 ~)
이 재 욱
소설가 (1947 ~)
박 수 호
시인
(1953 ~)
김 충 규
시인
(1965 ~ 2012)
주요작품
주요수상경력
복사골문학회
1989년 : 복사골문학회 창립 (초대회장 문제술)
1990년 : 〈부천문단〉 창간호 발간
1992년 : 시 동인 '수주', '소향', 동화·소설 동인 '주부토' 창립
1993년 : 수필 동인 '원모래', '멸외', 평론가 동인 '부천 평론가' 창립
1997년 : 소식지 '내사랑 복사골문학회' 창간 / 시조 동인 '우휴모락' 창립
회원 저서 전시회 '책이 있는 풍경전' /
제1회 부천시인 전통시조백일장 개최
복사골문학회 부천시로부터 표창 받음 (국제영화제 공로)
1998년 : 수필 동인 '조마루', 시 동인 '골모' 창립
수주 변영로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02년 : 동화 동인 '도향', 소설 동인 '주부토' 로 분리 독립
〈부천문단〉 제15집 발간
2003년 : 회원록 '복사골문학회 사람들' 제5집,
신우물 시 동인 동인지 〈유효기간〉 발간
수필 동인 하우고개, 멸외, 조마루 동인지 〈애기똥풀〉 발간
수필 동인 '솔안말' 창립
2004년 : 〈부천청소년문학〉 5집, 30차 문학기행 특집호 〈부천문단〉 발간
부천어린이문학 〈꿈〉 창간호 발간
제7회 부천청소년문학상 시상
2006년 : 부천 수필가협회 창립 (초대회장 한영희)
〈부천수필〉 창간호 발간
2007년 : '부천시인협회' 창립 (초대회장 금미자)
〈부천시인〉 창간호 발간
2008년 : 부천소설가협회 창립 (초대회장 최현규)
〈소설과 비평〉 창간호 발간
2009년 : 부천시인협회 '어름다운 어름방의 시 낭송회'
-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사 창립 -
창립 20주년 기념축제 - 복사골 문화센터 2층 아트홀 -
2013년 : 부천시 승격 40주년기념 '부천문단 제26집 (그대와 함께 부르는 복사골 연가)', 출간
2017년 : 〈부천문단〉 제30집, 〈부천시인〉 제11집, 〈부천수필〉 제12집,
〈소설과비평〉 제10집 발행, 제27회 복사골문학상 시상
2018년 : 복사골문학총연합회 시화전 - 시청역 갤러리 (3월 30일 ~ 4월 4일)
제60회 복사골문학기행 (단양 새한서점과 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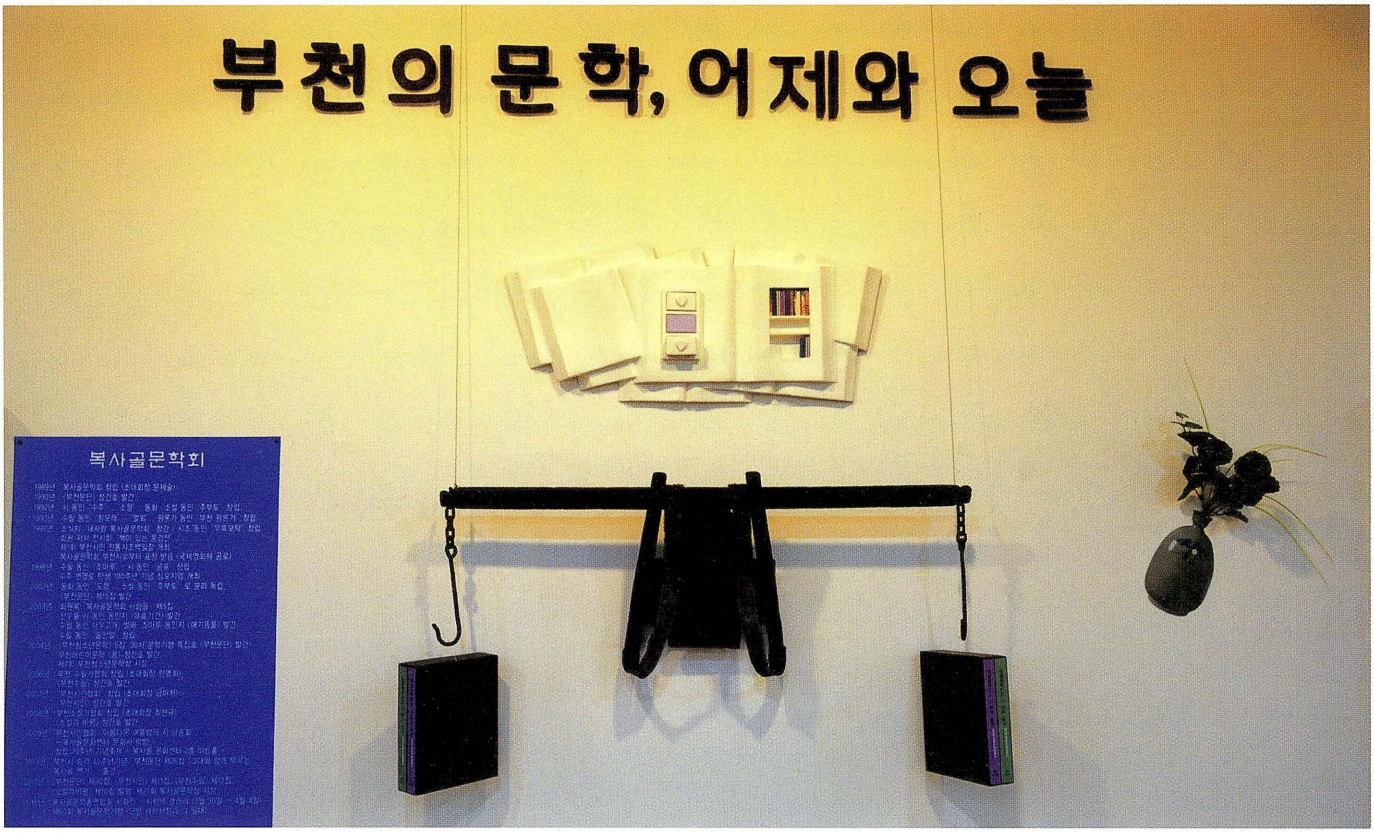

의 문학, 어제와 오늘


손대지마세요
손대지마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입니다
왜 부천이었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우리 부천이 간직해온 훌륭한 근현대 문학적 자산과 꾸준히 추진해온 도서관 · 교육 · 문화사업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가입이 아니라, 앞으로 창의도시로서 우리 부천의 비전과 역할입니다.
문학과 창의성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문학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각각의 테마를 가진 다양한 도서관 인프라,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자유로움을 도와주는 만화와 영화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17년 11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받았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자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지금도 불리는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한국 대표 아동문학가 은성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등 수많은 문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3년 부천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인이나 작가지망생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 여러 문인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문학행사와 동인문학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 전시는 왜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었는지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부천의 문학, 어제와 오늘
이상로(후원회)
강경규
김영달
유경환
최현규


文學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부천의 문학, 어제와 오늘
복사골문학회


수주문학
수주문학
수주 변영로 향전집
최은휴 戀歌
SONGS FROM KOREA

Part 2.

복사골에 살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 자전거는
울 아버지 장에 갔다 돌아오실 때
꼬부랑 꼬부랑 고개를 넘어
비탈길로 스르르르 타고 온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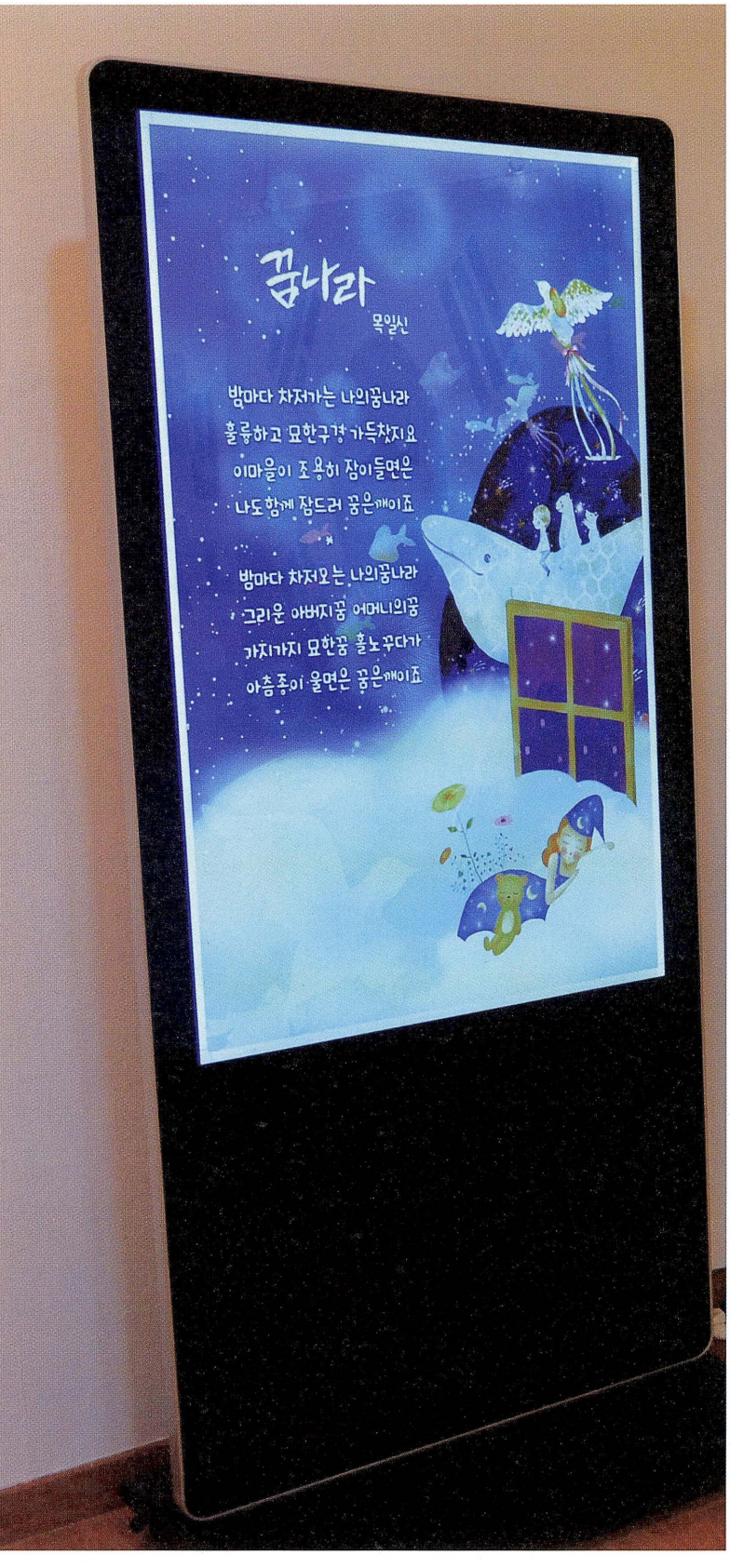
"아 목일신"
은성 목일신(1913 ~ 1986) 선생의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 시절 자전거, 선생님께서 생전에 좋아 하셨던 사이다,
영상과 브로마이드를 조합하여 구성 하였다.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목일신
1913-1986
아동문학가
전남 고흥 출신이지만 1960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천시 범박동에서 거주함. 이 무렵 주로 수필을 썼으며, 〈범박동가〉를 짓기도 함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자전거〉, 〈자장가〉
기념사업
• 목일신 둘레길 조성
• 목일신 문학마을
• 아동작가거리
• 학교 · 도로명 부여(은성)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목일신


꿈나라
목일신
밤마다 차저가는 나의꿈나라
훌륭하고 묘한구경 가득찼지요
이마을이 조용히 잠이들면은
나도함께 잠드러 꿈은깨이죠
밤마다 차저오는 나의꿈나라
그리운 아버지꿈 어머니의꿈
가지가지 묘한꿈 홀노꾸다가
아츰종이 울면은 꿈은깨이죠


아! 목일신
목일신



자전거

피르릉 피르릉 빗커나서요
자전거가 갑니다 피르르르릉
저기가는 저멍감 꼬부랑영감
어울어울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피르릉 피르릉 빗커나서요
자전거가 갑니다 피르르르릉
오불랑 꼬불랑 고개를넘어
비탈길을 스르륵 지나갑니다.

피르릉 피르릉 이자전거는
울아버지 사오신 자전거라오
머나먼 시골길을 돌아오실제
간들간들 타고오는 자전거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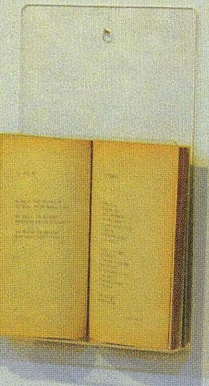
그대와 나 사이에
모든 가리움 없어지고,
넓은 햇빛 가운데
옷으로 가리우지 아니한
발가벗은 맨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사랑」과「믿음」의 불꽃이
낡은「말」을 사루어
그대와 나 사이에
말없이 서로 알아듣고,
채침 없이 서로 붙잡고,
음욕 없이 서로 껴안을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오, 그대 ! 나의 靈魂[영혼]의 벗인 그대 !
우리가 그리우는「그때」가 오면,
「우리 世紀[세기]의 아침」이 오면,
그 때는 그대와 내가
부끄러워 눈을 피하지 않을 터이지요.
두려워 몸을 움츠러뜨리지 않겠지요.
오, 그대 ! 언제나 그 때가 옵니까?



수주 변영로(1897~1961)
부천은 수주 변영로 선생을 논하지 않고는 부천을 말할 수 없다.



그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대와 나 사이에
모든 가리움 없어지고,
넓은 햇빛 가운데
옷으로 가리우지 아니한
발가벗은 맨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사랑」과 「믿음」의 불꽃이
낡은 「말」을 사루어
그대와 나 사이에
말없이 서로 알아듣고
채침없이 서로 붙잡고
음욕없이 서로 껴 안을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오, 그대 나의 靈魂[영혼]의 벗인 그대!
우리가 그리우는 「그때」가 오면,
「우리 世紀[세기]의 아침」이 오면,
그 때는 그대와 내가
부끄러워 눈을 피하지 않을 터이지요.
두려워 몸을 움츠러뜨리지 않겠지요.
오, 그대! 언제나 그 때가 옵니까?

— 시집 「朝鮮[조선]의 마음」, 1924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대와 나 사이에
모든 가리움 없어지고,
넓은 햇빛 가운데
옷으로 가리우지 아니한
발가벗은 맨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사랑」과 「믿음」의 불꽃이
낡은 「말」을 사루어
그대와 나 사이에
말없이 서로 알아듣고
채집없이 서로 붙잡고
음욕없이 서로 껴 안을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오, 그대 나의 靈魂 영혼]의 벗인 그대!
우리가 그리우는 「그때」가 오면,
「우리 반단[세기]의 아닐」이 오면,
그 때는 그대와 내가
부끄러워 눈을 피하지 않을 터이지요.
두려워 몸을 움츠러뜨리지 않겠지요.
오, 그대 ! 언제나 그 때가 옵니까?
— 시집 「韓輯[조선]의 마음」, 1924
변영로
1897-1961
한국 신시의 선구자
변영로는 자신의 아호를
부천의 옛 이름을 따서
수주(樹州)라 했음.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번들이여), (논개)
(시인, 예술가, 철학자여)
기념사업
• 수주로
• 수주문학축제
• 시비, 조형물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변영로
桃


보석같은 사람들 펄벅
펄 벅
1892-1973
展
미래
유물
in


수주 변영로



변영로

1897-1961

한국 신시의 선구자

변영로는 자신의 아호를 부천의 옛 이름을 따서 수주(樹州)라 했음.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벗들이여〉, 〈논개〉
〈예술가, 철학자여〉




Pearl S.
Buck



"1962년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펄 벅(Pearl S. Buck·1892~1973) 여사의 일화를 아십니까?"
최종고(71)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물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들을 초청한 자리였다고 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펄 벅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묻자 "한국이 배경인 소설('살아 있는 갈대')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케네디가 "아이고, 골치 아픈 나라인데… (우리는 손을 떼고) 일본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하자 펄 벅이 정색을 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또한 대한민국 부천군 심곡본동에서 소사희망원을 만들어 전쟁고아들을 돌보며 박애정신을 보여준 모습을 엮어 보았다.

펄 벅은 60년대 경주 지역을 여행하다 논. 밭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농부가 수레를 비우고 지게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 수레에 짐을 싣고 수레를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소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든데 집에 가는 길이라도 쉬게 해 주고 싶다는 농부의 말을 듣고 한국인의 마음 씀씀이에 놀랐고, 감나무 수확을 마치며, 까치밥으로 감을 몇 개 남겨 놓은 모습에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는 글을 남긴 게 아닌가 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나라 전통 문창살 속에 펄 벅에 사진을 넣으므로 그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HOOK
예총三十年史
鄕土文化研究論文叢書
고창문화원 40년사
전국문화원 사업총람
2003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수상집
金東文化院五十年史
전국문화원연합회 40년사
고창문화원 30년사



潭陽鄉校誌
大田의 鄉校·書院
紹修書院誌
韓國의 文化院
公州文化院 五十年史
建協四十年史
한국인의 효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사람들 필벅

펄벅-독백

1954년 크리스마스 직후, 뉴욕에서... 만난 펄벅

한국인은 한국인이 전통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참다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한국인 자신입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1960년 11월 1일, 조선일보&여원사 초청 방한〉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오려고 별렀습니다.
이번에 소원이 성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이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철을 가리켜 하늘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한다면서요?
말이 살이 찌다니... 참 재미있어요 (미소)
한국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여기에 살았더라면 아마 화가가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인자한 분들의 얼굴들,
갓 쓰고 수염 긴 백발의 노인들,
아름다운 시골 아낙네,
그리고 소에도 짐을 싣고 소를 모는 주인도 짐을 진 그 아름다운 정경
그리고 인상적인 바다의 풍경 등
나는 이 여섯 가지는 꼭 그리고 싶어요.

내가 한국에 온 유일한 목적은 한국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전통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의 것은 참다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한국인 자신입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1960년 11월 1일, 조선일보&여원사 초청 방한〉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오려고 별렀습니다.
이번에 소원이 성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이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서는 이 철을 가리켜 하늘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한다면서요?
말이 살이 찌다니... 참 재미있어요 (미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여기에 살았더라면 아마 화가가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인자한 분들의 얼굴들,
갓 쓰고 수염 긴 백발의 노인들,
아름다운 시골 아낙네,
리고 소에도 짐을 싣고 소를 모는 주인도 짐을 진 그 아름다운 정경
그리고 인상적인 바다의 풍경 등
나는 이 여섯 가지는 꼭 그리고 싶어요.
내가 한국에 온 유일한 목적은 한국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나랏 말ᄊᆞ미 듕귁(中國)에 달아 문ᄌᆞᆼ(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
이런 젼ᄎᆞ로 어린 ᄇᆡᆨ성(百姓)이 니르고져 홇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ᄯᅳ들 시러펴디 몯 ᄒᆞᆯ 노미 하니라.
내 이ᄅᆞᆯ 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ᄌᆞᆼ(字)ᄅᆞᆯ 밍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여 수ᄇᆡ 니겨 날로 ᄡᅮ메 ᄡᅥᆫ한(便安)킈 ᄒᆞ고져 ᄒᆞᆯ ᄯᅳᄅᆞ미니라.

훈민정음을 창제 하신 세종대왕을 기리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
2011 도시대상




그 때가 언제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마처기도전에
깨칠것이요,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 훈민정음 해례본 —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
향수
양귀자
1955~
1980년대 한국 단편소설 걸작(원미동사람들)집필
• 부천 원미동 배경
•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함.
기념사업
• '원미동사람들' 거리 조성
• 다리(橋)명 부여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 양귀자

부천에서의 삶을 기리며….


NICKEL
2018
정지용
전집
정지용
전집




정지용
1902-1950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해방 이후 부천에 3여년간 거주
부천 최초 성당창립에 기여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향수〉, 〈고향〉, 〈유리창〉
기념사업
• 기념팻돌(거주지) 및 시비
• 정지용 향수길 조성
(성주산 가족산책로)
2018
미래유물展


어어,
또 하나의 희망!
부천시
유네스코
Since 2017
양귀자
1955-
1980년대 한국 단편소설
걸작(원미동사람들)집필
• 부천 원미동 배경
•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함.
기념사업
• '원미동사람들' 거리 조성
• 다리(橋)명 부여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이천하


꿈엔들 잊힐리아
향수
정지용
1902-1950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해방 이후 부천에 3여년간 거주
부천 최초 성당창립에 기여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향수〉, 〈고향〉, 〈유리창〉
기념사업
• 기념묏돌(거주지) 및 시비
• 정지용 향수길 조성 (성주산 가족산책로)
미래유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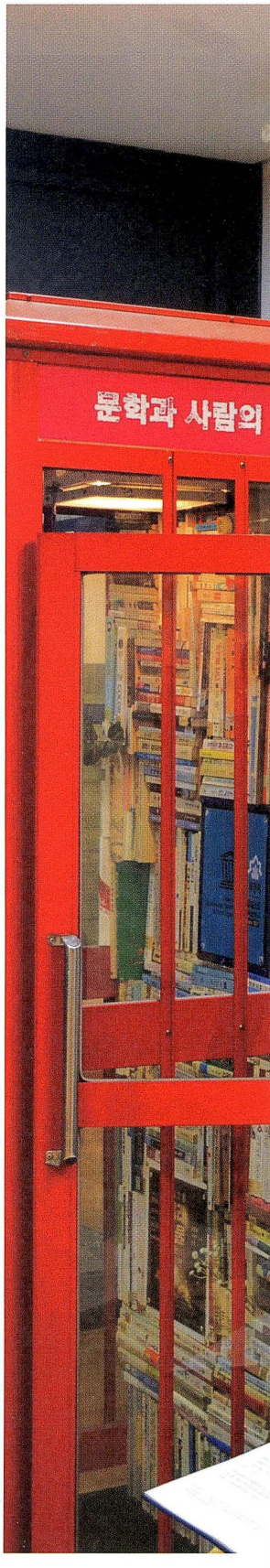
Part 3.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

우리는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과제를 설정하고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왔다.

부천시는 창의도시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1인 1저 책쓰기 등
시민 창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는 부천 출신 문인들을 기리는 많은 시비를
건립하고 문인의 이름을 주요 도로명과 공원명,
학교명으로 삼는 등 풍요로운 문학적 자산을 존중하고 있다.




부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입니다
왜 부천이었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우리 부천이 간직해온 훌륭한 근현대 문학적 자산과 꾸준히 추진해온 도서관 · 교육 · 문화사업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가입이 아니라, 앞으로 창의도시로서 우리 부천의 비전과 역할 입니다.
문학과 창의성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문학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18 미래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유산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자유
바탕으로 2017년 11월
지정받았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선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많은
은성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3년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인이나
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을 중심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었


꿈나라
목일신
밤마다 차저가는 나의꿈나라
훌륭하고 묘한구경 가득찼지요
이마을이 조용히 잠이들면은
나도 함께 잠드러 꿈은깨이죠
밤마다 차저오는 나의꿈나라
그리운 아버지꿈 어머니의꿈
가지가지 묘한꿈 홀노꾸다가
아츰종이 울면은 꿈은깨이죠
부천문


화원
20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10. 29.
11. 05.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희망!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이천하
양귀자
1955-
1980년대 한국 단편소
걸작〈원미동사람들〉집
• 부천 원미동 배경
• 1981년부터 1990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
기념사업
• '원미동사람들' 거리
• 다리(橋)명 부여
2018
미래유물
in 부

입제 강점기 민족시인

수주(樹州) 변영로



변영로는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 에서 머문 시절을 보내면서 문학의 싹 꿈을 키웠으며, 부천을 본인의 마음의 고향으로 두었다.

변영로의 호 수주(樹洲)는 그러 시대 부천의 이정이기도 하다.

1. 변영로 묘소(변영로 탄생 100주년 기념비 / 변영로 시비)
수주로 64-11(고강동)
고강동에는 변영로와 가족들의 묘가 있다. 1969년에는 '생시에 몸 눠울 님, 시비가, 변영로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1998년에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2. 변영로 고향집 기념표석 수주로 70(고강동)
1997년 7월 한국문인협회에서 "문화유산의 해" 를 맞이하여 수주 변영로의 고향집에 그를 기리는 표석을 세웠다.

3. 변영로 기념동상 고강지하도로 서측
고강지하보도 서쪽에는 변영로의 동상이 세워져 으며, 동상 앞에는 그의 시 「봄비」가 적힌 포돌이 있다.

4. 변영로 시비 '논개' 소향로 162(초공공원)
1996년 한국문인협회에서 중앙공원에 세운 시비. 변영로의 '논개」는 역장을 개연고 남긴에 부은 꽃에 하여든 의로운 기생 논개의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5. 변영로교 심곡 시민의 강
심곡천 복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6개의 다리 중 하나로 변영로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변영로교로 명명하였다.

6. 봄비공원 성곡동 103
심곡천 변영로교 인근에는 그의 시에서 이름을 큰 봄비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봄비」, 시비도 설치되어 있다.

7. 달빛공원 중동 1115
변영로의 시 「달빛」에서 이름을 딴 공원으로, 공원 안에 「달빛」 시비를 세웠다.

8. 수주문학관(2021년 개관예정) 고강동 679이고강산사무직공원
변영로가 살던 고강동 부근에 건립되는 수주도서관 내에는 변영로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1980년대
한국 현대 소설의 대표

양귀자



양귀자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면서 30대의 한국 단편문학의 정수'라고 평가 받는 「원미동사람들」을 집필하였다.

「원미동 사람들」은 부천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당시 한국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18.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조성된 거리로 「원미동 사람들」, 속 인물의 특징을 살린 동상과 조형물 등을 세워놓았다. 부천시는 한국의 압축적 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에서 밀려난 도시 서민과 서울로 밀려들를 찾아 들어 오는 이주민들이 뒤섞인 삶에서 희망과 아픔이라는 의미를 공유한 도시이다.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에서 등장하는 원미동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꿈꾸는 가상의 유토피아이기도 하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곳에 있으면 소설 속으로 걸시 여행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9. 양귀자 글씨 '진달래' 송의동 신당4동 동산
매년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원미산 진달래 동산에 세워진 큰비로 양귀자가 쓴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원미산 진달래를 묘사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원미산에 진달래꽃이 만개한 봄경을 잘 묘사하여 진달래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진달래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20. 양귀자교 심곡 시민의 강
심곡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6개의 다리 중 하나로 부천을 배경으로 다수의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작가 양귀자를 기념하기 위해 양귀자교로 명명하였다.

21. 문학촬거리(2021년 완공예정) 심곡 시민의 강 - 별빛공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추진 중인 문학특화거리이다. 복원된 심곡천과 별빛공원을 연계하는 150m 구간에 「원미동 사람들」, 등장인물 동상과 벽화 등을 설치하여 지역 문학 자산인 「원미동 사람들」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한국 대표 아동문학가

목일신



「지전기」, 「자장가」, 「메뚜방울」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많은 작품을 집필한 목일신은 1960년에 부천으로 이사와 1986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다.

별빛동에 있는 산책로에서 주로 수필을 쓰며 '별빛동가」를 짓기도 했다.

9. 목일신 공원 별빛로58번길 11(고강동)
목일신은 4000여 편이 넘는 동시와 동요를 짓고 한국아동문학가협의의 부회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사 등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재단건강문화원이 목일신 공원으로 체단변개하였다. 공원 곳곳에서 목일신 작가의 작품을 테마로 한 조형물과 시비를 만날 수 있고 조용한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10. 목일신 트릭아트길 별빛로 80(별빛동)
별빛동 내 방음벽 시설에 조성된 트릭아트길로 목일신 선생의 대표작 「자전거」, 「무제동」, 「비누방울」, 「설오리」, 「달제비」, 「개구리우는밤」, 「종이비행기」, 「느티나무」 등 8편이 설치되어 있다.

11. 목일신 시비 '자전거' 소향로 162(초공공원)
2000년 10월 3일 어둠문학에 크게 공헌한 목일신을 기리기 위해 중앙공원 내에 건립한 시비. 「자전거」는 목일신의 13세 되던 1926년 소학교 시절 손동시로, 1926년부터 우리 문학사는 시대적 우울을 노래하던 암울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어린 나이의 목일신이 자전 동시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순수한 동심이 담겨 있어 더 소중하다.

12. 목일산교 심곡 시민의 강
심곡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6개의 다리 중 하나로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한 목일신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 '목일신교'로 명명하였다.

13. 목일신문학관(2021년 개관예정) 목갈동 772
옥길공공주택지구 내 건립예정인 별빛마루도서관에는 지역작가 목일신을 기념하는 문학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아름답게 기다림은 우리말로 천트자 정지용 탄생100주년 기념비명판 후문 인근에 설치.

기둥식 신자이기도 했던 그는 부천 최초의 성당을 창립하는데 일정시기도 했다.

14. 정지용 거주지 기념표석 경인로 316(소사본2동)
시인 정지용이 살던 집에 세운 기념표석.
한국전쟁 기간 중에 월북했으는 했지만 정지용의 작품은 1988년에 이근관서비 전면 해금이 되었다. 이후 정지용이 부천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1993년 5월 30일 복사골문학회가 정지용이 살던 집 근처 벽면에 기념표석을 세웠다. 기념표석에는 "여기는 한국 현대시의 큰 별인 정지용 선생이 가장 아두절던 시대에 3년 동안 은거하면서 시심(詩心)을 키우던 곳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15. 정지용 시비 '고향' 소향로 453(소사본동 청강복지센터)
정지용은 일제 치하 당시 부천군 소사읍, 현재 소사동으로 다리와 3년간 부천 지역에 거주하였다. 정지용이 부천에 살던 1943년부터 1946년은 일제 강점기로 우리말로 시와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기였다. 2003년 7월 소사본1동 (현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기리기 위해서 시비와 안내석을 세웠다.

16. 정지용 시비 '고향' 소향로 162(초공공원공원)
2000년 11월 부천시에서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 중앙공원 내에 시비를 설치했다. 정지용의 시 「고향」은 정지용의 대표작인 「향수」와 맥을 이루는 시로 그리움을 안고 찾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낯섬과 상심감을 표현하고 있다.

17. 정지용문학수길(2019년 완공예정) 서울신학대~성주산 체육공원
녹지와 문학을 테마로 한 부천시 첫 문학둘레길이다. 850m에 이르는 구간에 정지용의 작품과 생애를 작품 조형물, 쉼터 등으로 재구성한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 밖의 부천 문인들

26. 이상로 이상로는 1916년 부천군 소사읍 공레리 서울 공동)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뭐은서점」, "새점 속에서」, 등을 발간하며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시기에는 공동 일대가 부천에 속해 있었다. 그의 호 '소림(素林)' 은 '소사가 고향' 이라는 뜻으로 부천에는 그 이름을 딴 '소림공원' 과 '소림로' 가 있다.
소림공원 : 조마루로 254(송동동) / **소림로 :** 원미경찰서 삼거리 ~ 중앙공원 ~ 원복한 약국

27. 황 명 195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분수(噴水)」가 당선되면서 시인 활동을 시작한 시인 황명(본명 : 황복임)은 1931년 경남 김녕에서 태어났으나 열 살 때부터 부천군 소사읍에 살았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황명이 별세한 후 2000년 3월 4일 중앙공원에 황명의 시 「분수」 · Ⅱ 을 새긴 시비를 세웠다.
황명 시비 : 소향로 162(중앙공원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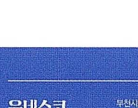
28. 최은휴 최은휴는 1931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 1956년 부천군으로 이주하여 소사읍 구지리(현 송내동)에 정착하였다. 40여 년 간 부천에 살면서 부천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최은휴는 부천문학동인단 결성하고 「부천문학」, 창간호를 발간하는 등 부천 문학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그를 기리기 위해 2003년 12월 27일 부천 중앙공원에 「복사골 연가」, 시비가 세워졌다.
최은휴 시비 : 소향로 162(중앙공원공원)

29. 이중응 조선 말기 「서사록」과 「서유견문록」을 저술한 이중응(李鍾應)(1853~1920)은 부천시 소사본1동 옷소사에 1009년 년 전 이주한 진주이씨 덕촌대방문 추손이다. 「서사록」과 「서유견문록」은 당시로는 김이로웠던 서구문물을 소개하여 근대 외교사의 연구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서사록」은 부천 향토역사문에 소장되어 있다.
부천향토역사관 : 소사로 630(역말동)

미니책방 & 문학카페



30. 물길따라공원 속 미니책방
성동 시인의 강 물길 따라 조성되어 있는 공원 속 미니책방으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독서공간이다. 미니책방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다보면 플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잠시 도심을 벗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복원된 심곡천을 따라 추가로 세 곳의 미니책방이 조성될 예정이다.
원진공원 - 성동 시인의 강 - 심동 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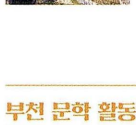


31. 문학카페 책 수다방
성동도서관 맞은편에는 이색 카페들이 줄비해있는 카페거리가 있다. 그 곳에 문학카페 '책수다방' 6장이 운영 중이다.
카페 내에 시가와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창구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카페21스트리트 : 성이로21번길 8-4
커피공주 : 성이로 13
카페점태 : 성이로 9-1
커피빌보 : 성이로21번길 7-7
카페 락 : 성이로 39
커피공방 : 성이로39번길 7-8

문학 산책로



32.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성동 석천골 내 보행자 통로를 따라 꽃동주, 김영랑 등 한국 대표 시인들의 시비 35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 조성한 거리로 꽃향기와 함께 문학의 향기도 맡을 수 있다.
석천로 85-1(산동)



33. 원미공원 문학동산
2011년 '청춘한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숲속 산책로 이다. 원미산 산림욕장 주변에 8명과 중기를 중수 있는 원미과 마음을 다스려는 명상의 글 등 새 300개와 다양한 아생화가 아우러진 숲속의 문학 산책로이다.
원미산 산림욕장(원미동)



34. 예술이 흐르는 강
2010년 10월 부천 공공미술프로젝트운영위원회가 심지한 총 12개의 시비가 강물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최은휴 등 직고하신 작가분 아니라 현존하는 부천출신 작가들의 시을 감상할 수 있다.
조마루로 910(성곡동)

행복한 만화세상, 만화도시 부천

35. 한국만화박물관(만화도서관)
한국만화 100년을 체험할 수 있는 멀소이며, 2층에는만화도서관도 있다.
경우로 1(성동)

36. 만화작가 현정관(김종래)
'엄마찾아 삼만리」, 등을 그린 김종래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이다.
부천로 360(도당동, 도당어울마당)

37. 만화작가 현정관(신동우)
'물문이 흥갑동, 등을 그린 신동우의 작품 소개와 현정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성모로 172(오정동, 오정도서관)

38. 숲속 만화로
삼1동 평심의 숲길 내 만화 특화거리로, 국내 유명 만화 조형물 22점이 설치되어 있다.
성일로 109(성1동, 꿈자공원)

39. 독고탁 야구장
독고탁 조형물 및 캐릭터 그림으로 꾸며진 먼조 진디 야구장이다.
별빛로 220(대장동 복부수직펌프실동 내)

40. 임꺽정로
만화가 야우소의 제능가부를 통해 조성된 거리로, 만화 '임꺽정」과 관련된 큰텍스가 곳곳에 심어져 있다.
소사구 무궁로 10번길(고강동 115-6)

41. 왈순아지매 거리
1960년대 시사만화 주인공 '왈순아지매' 조형물이 세워진거리로 전통시장과 근접해있다.
제유로 33(심곡본동, 직무시장 앞)

42. 부천역 상상거리 만화 조형탑
부천역 상상거리에 세워진 만화 조형탑. 하대에는 유명만화가 10인의 핸드프린팅이 있다.
부천로3번길 48(심곡동)

43. 역곡역 철로변 만화 벽화
역곡역 남부경찰 철로변에 그려진 만화벽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 참여하였다.
역곡 남부역 철로변

44. 아파트 만화벽화
송내대로 변과 중앙공원 변 아파트 23면에 조성된 대형 만화벽화로 만화도시 부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송내중로(심석역~공원마을), 아카시아길, 무지개마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도서관 인프라, 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화와 영화 산업 발전을 인정받아 2017년 11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에 유산이 뛰어난 '문학창의도시'를 지정하여 각 도시가 문학을 가꾸고 추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도시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지역 문학이 한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학

부천은 신생 산업도시이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도 뛰어난 현대 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며 초대 한국 펜클럽 회장을 지낸 변영로와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정지용이 부천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 한국 현대 소설을 대표하는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당시 부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가들 외에도 부천의 문인 작품 중 상당수가 초 · 중 · 고 교과서에 수록되었을 정도로 부천은 한국의 현대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단과 문인활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계기는 1973년 시로 승격한 이후 부천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이 늘어나고 각종 교육기관이 확대되면서 기성 문인이나 작가지망생들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이 시기에 다양한 문인단체들이 창립되기 시작했으며, 문인들이 주도하는 문학행사, 동인문학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해졌습니다.

부천 문학 활동의 중심 도서관

문학창의도시 부천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도서관이다. 부천시에는 13개의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화주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개의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건립 추진 중에 있다.

문학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45. 상동도서관
위 치 상이로 121(상동)
열람석 032-625-4705

청소년과 글이 가득한
46. 원미도서관
위 치 소사로 456(원미동)
열람석 032-625-4723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47. 심곡도서관
위 치 성무로 244(심곡본동)
열람석 032-625-4588

다함께 누리는 꿈의 공간
48. 북부도서관
위 치 삼작로30번길 51(도당동)
열람석 032-625-4605

인문학으로 만나는 세상은 넓고
49. 꿈빛도서관
위 치 신흥로275번길 19(중동)
열람석 032-625-4621

청소년 어린이들의 꿈터
50. 책마루도서관
위 치 심온로 121(중동)
열람석 032-625-4645

우주와 맞닿 공간처럼
51. 한울빛도서관
위 치 소사로 1071(소사본동)
열람석 032-625-4670

맛은 꿈이 가득한 도서관
52. 꿈여울도서관
위 치 까치로 103(작동)
열람석 032-625-4688

청소년과 글이 친근할 카페같은
53. 송내도서관
위 치 경인로92번길 33(송내동)
열람석 032-625-4515

모든 것이 새롭고 그 안에서
54. 도당도서관
위 치 부천로 360(도당어울마당)
열람석 032-624-4500

공기속이 함께 즐기는 만화 특화
55. 오정도서관
위 치 원오로 172(오정동, 오정도서관)
열람석 032-625-4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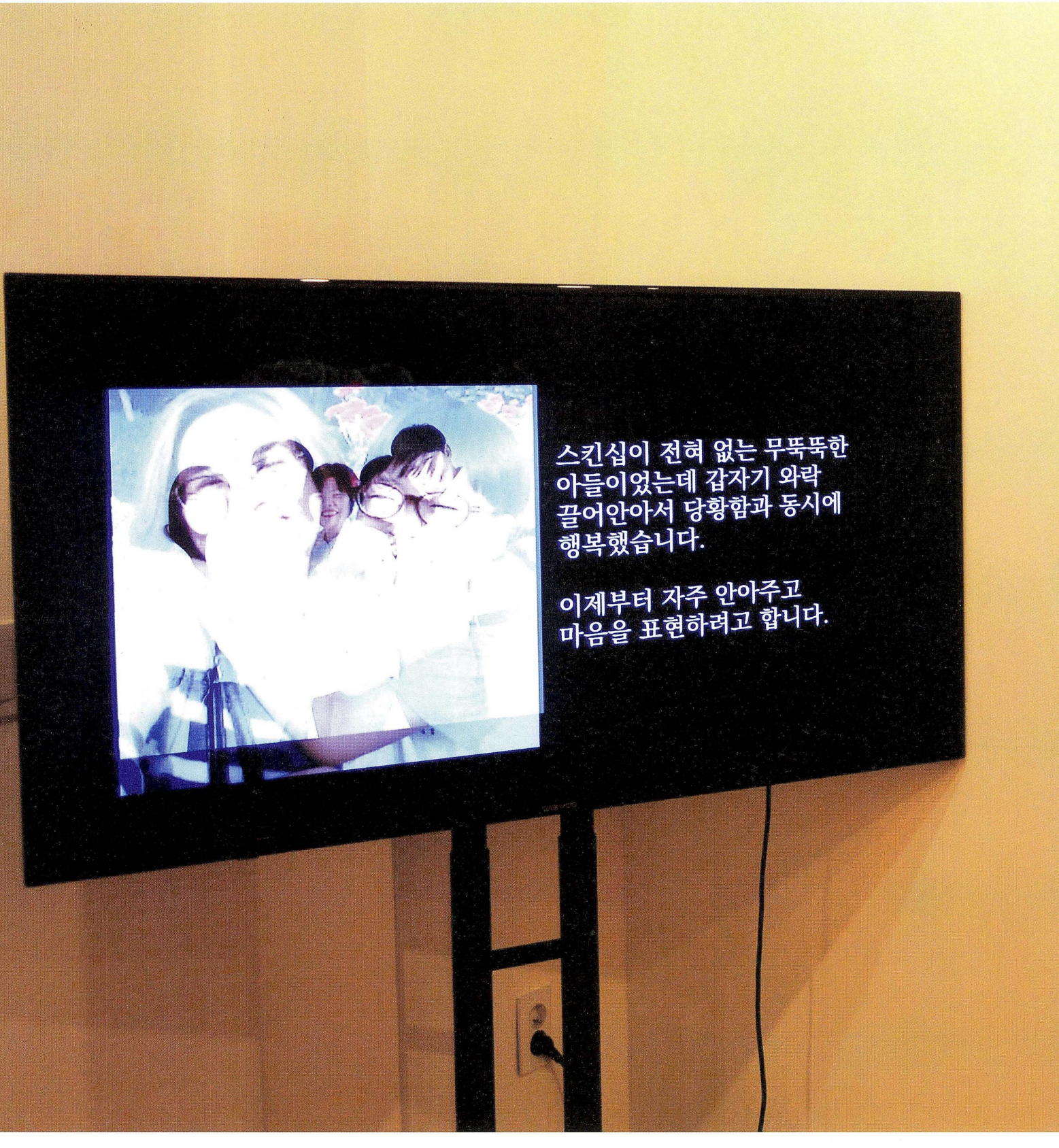
여가 함께 하실의 나라로
56. 중화도서관
위 치 원양로 180, 별빛어울림센터(송내동)
열람석 032-625-4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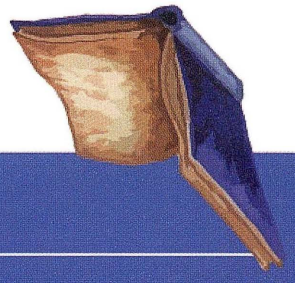
예술성보도서관
57. 다 감
위 치 장말로 107, 시청(복사골문화센터)
열람석 032-320-6329

시각장애인을 위한
58. 해빛도서관
위 치 복산로 10번길 41(동심)
열람석 032-650-4600

예정도서관 역곡 신축 예정
59. 개관예정 도서관
역곡도서관 역곡 신축 예정
별빛어울림센터 리모델링 7F (2021년 개관예정)
수주도서관 고강동 679이고강산사무직공원 예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
경기도 부천시 성이로 12 T. 032)625-4550 E. bucheon.cityofliti@gmail.com


스킨십이 전혀 없는 무뚝뚝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와락
끌어안아서 당황함과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안아주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도서관 인프라, 문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화와 영화 산업 발전을 인정받아 2017년 11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예 유산이 뛰어난 '문학창의도시'를 지정하여 각 도시가 문학을 가꾸고 후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도시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지역 문학이 현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학

부천은 신생 산업도시이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도 뛰어난 현대 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며 초대 한국 펜클럽 회장을 지낸 변영로와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정지용이 부천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 한국 현대 소설을 대표하는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은 당시 부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가들 외에도 부천의 문인 작품 중 상당수가 초 · 중 · 고 교과서에 수록되었을 정도로 부천은 한국의 현대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단과 문인활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계기는 1973년 시로 승격한 이후 부천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이 늘어나고 각종 교육기관이 확대되면서 기성 문인이나 작가지망생들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이 시기에 다양한 문인단체들이 창립되기 시작했으며,문인들이 주도하는 문학행사, 동인문학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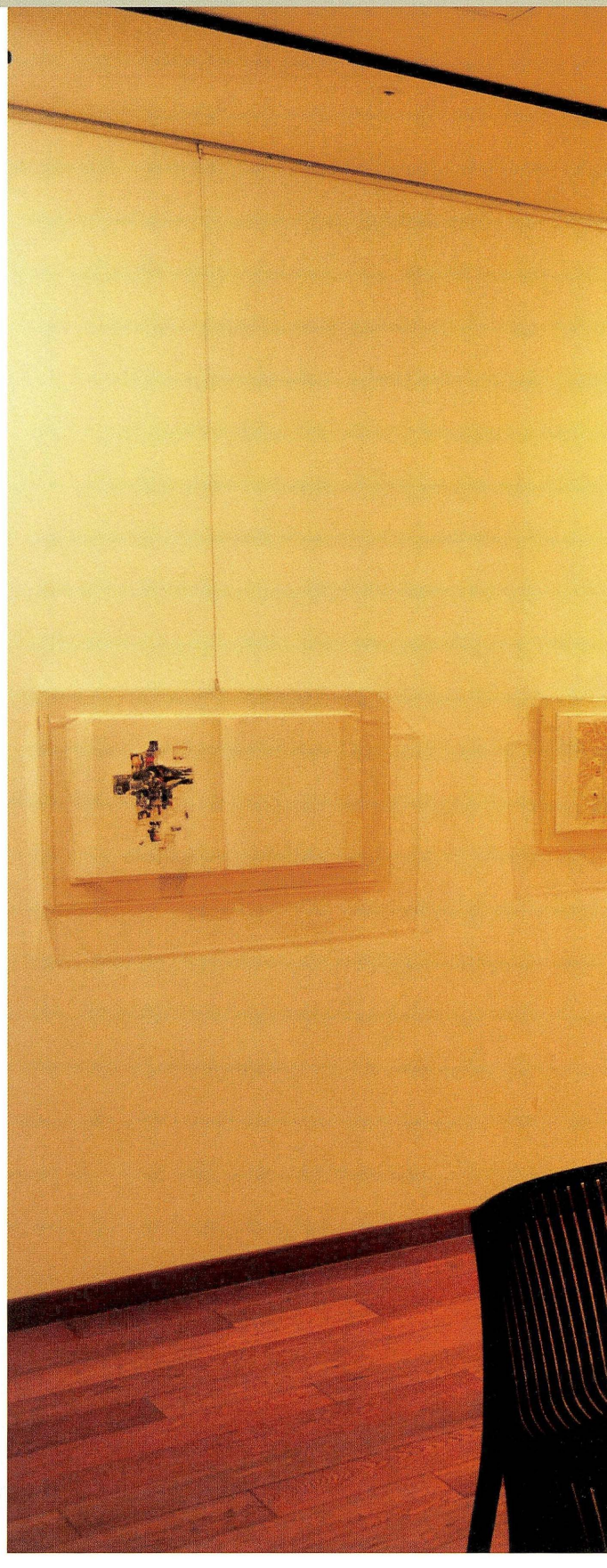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별관 전시

책은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 중 우위에 있다. 아름다운 시어로 춤을 추는 시집이거나 복잡한 설계도면이 담긴 공학서적 등 불문하고 그 속엔 시대의 얼굴이 담기기 마련이다. 시대의 생각, 현상이 보편적인 언어로 타자를 향하고 있어 종교와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을 말한다. 가장 따뜻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소통의 방편이다.

이번 고기범 작가의 작품은 '책'이라는 프레임 안에 세상을 담았다. 펼쳐져있는 순백의 책장과 책장 사이에는 시니피앙을 넘어서는 제3의 언어인 듯 음각되거나 투각, 또는 양각의 입체적 구성 사이에 작가의 세계관을 담았다. 이를 테면 '벽'과 '책'의 입체적 작품이 마치 평면화처럼 안착되었다. 때론 사각의 창 밖에 자작나무가 살기도 한다. 작가의 책이란 뮤즈가 사는 세상처럼 따뜻하다. 이는 백색이 주는 순수하고 형이상학적인 환상적 행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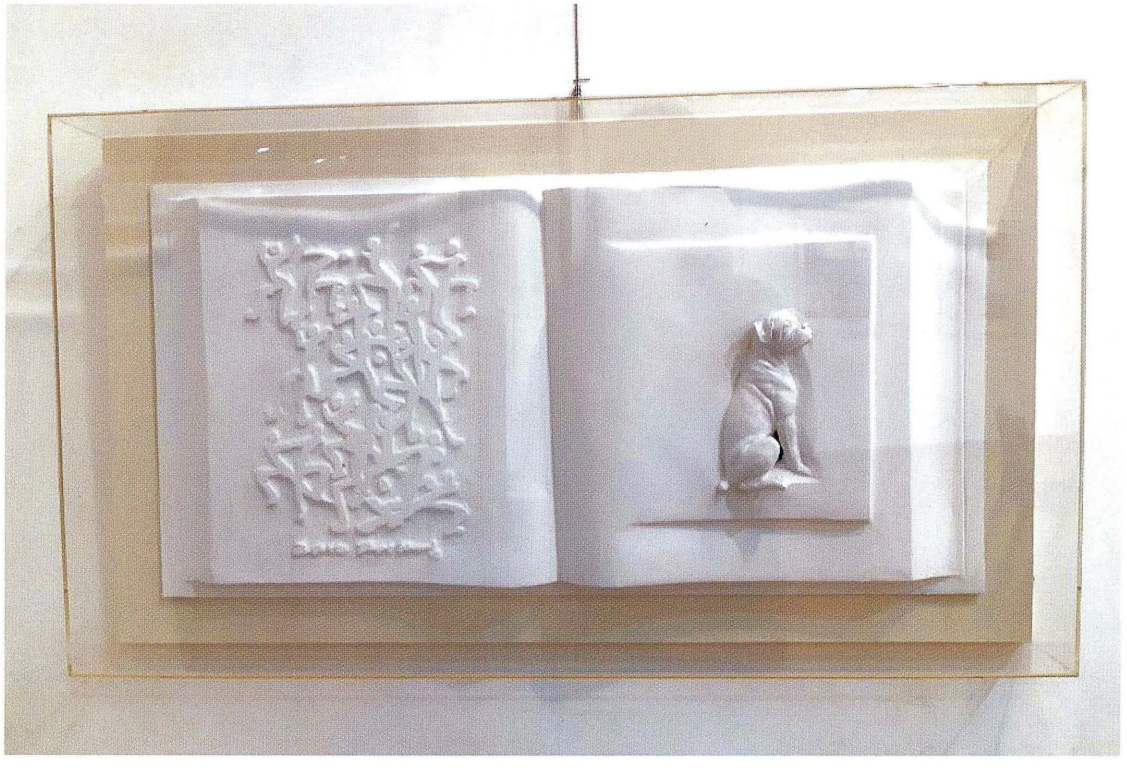
소통은 격변이 아니고, 간절한 파격이다. 현대인들이 간과했던 진정성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켜켜로 쌓아올린 책 속에는 염원조차 보인다. 미래와 유물이 만나는 현장, 책을 주제로 하는 중견작가의 소통방식은 건강하고 결이 곱다. 인류가 나아가야 하는 감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유물전 in 부천> 전시장의 초입에서, 혹은 말미에서 느끼는 겸허하고 소중한 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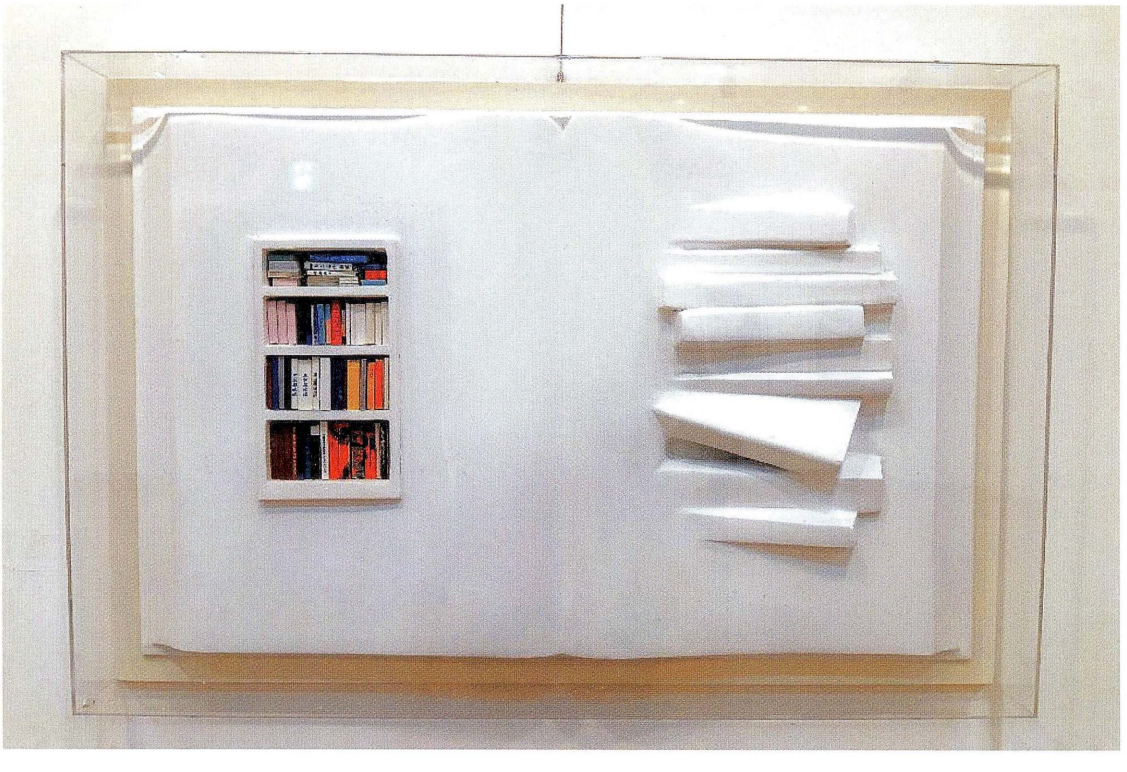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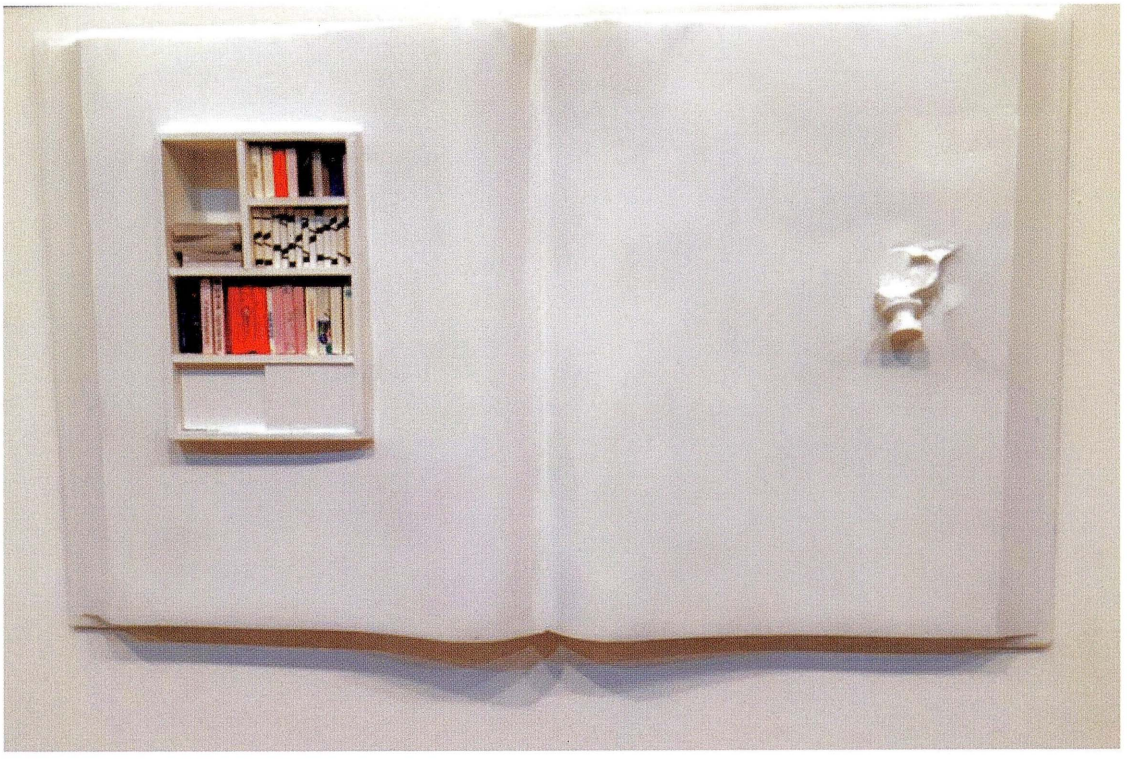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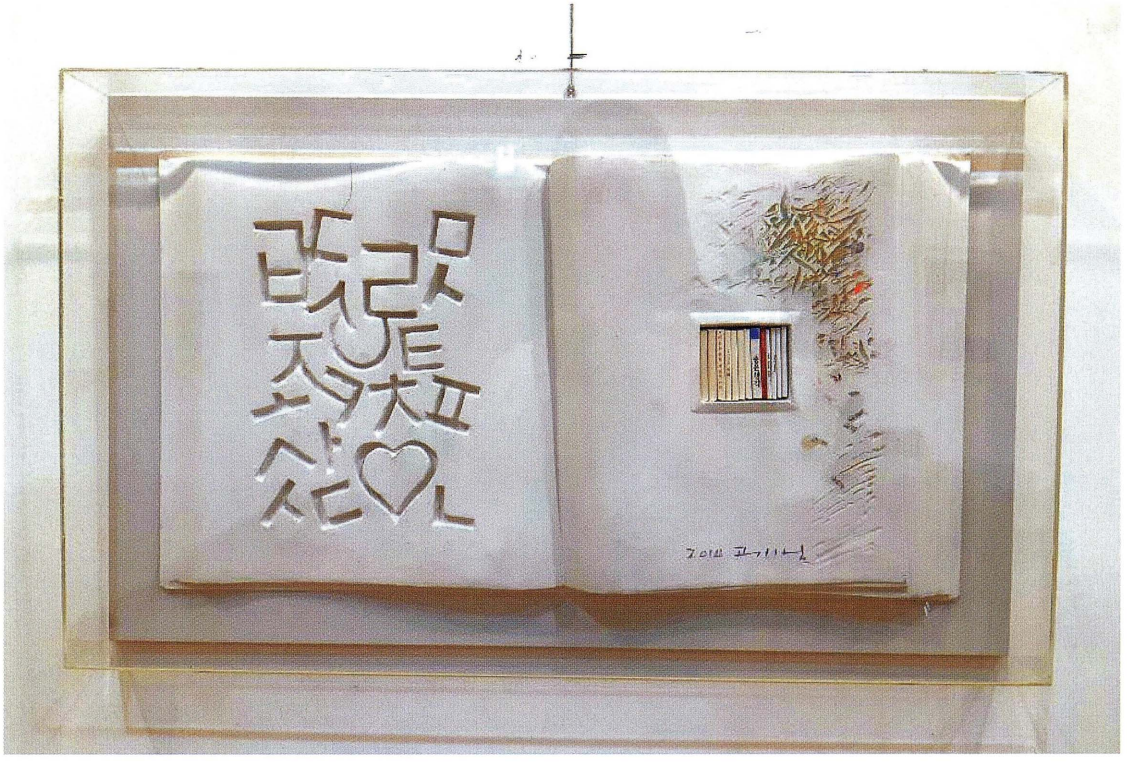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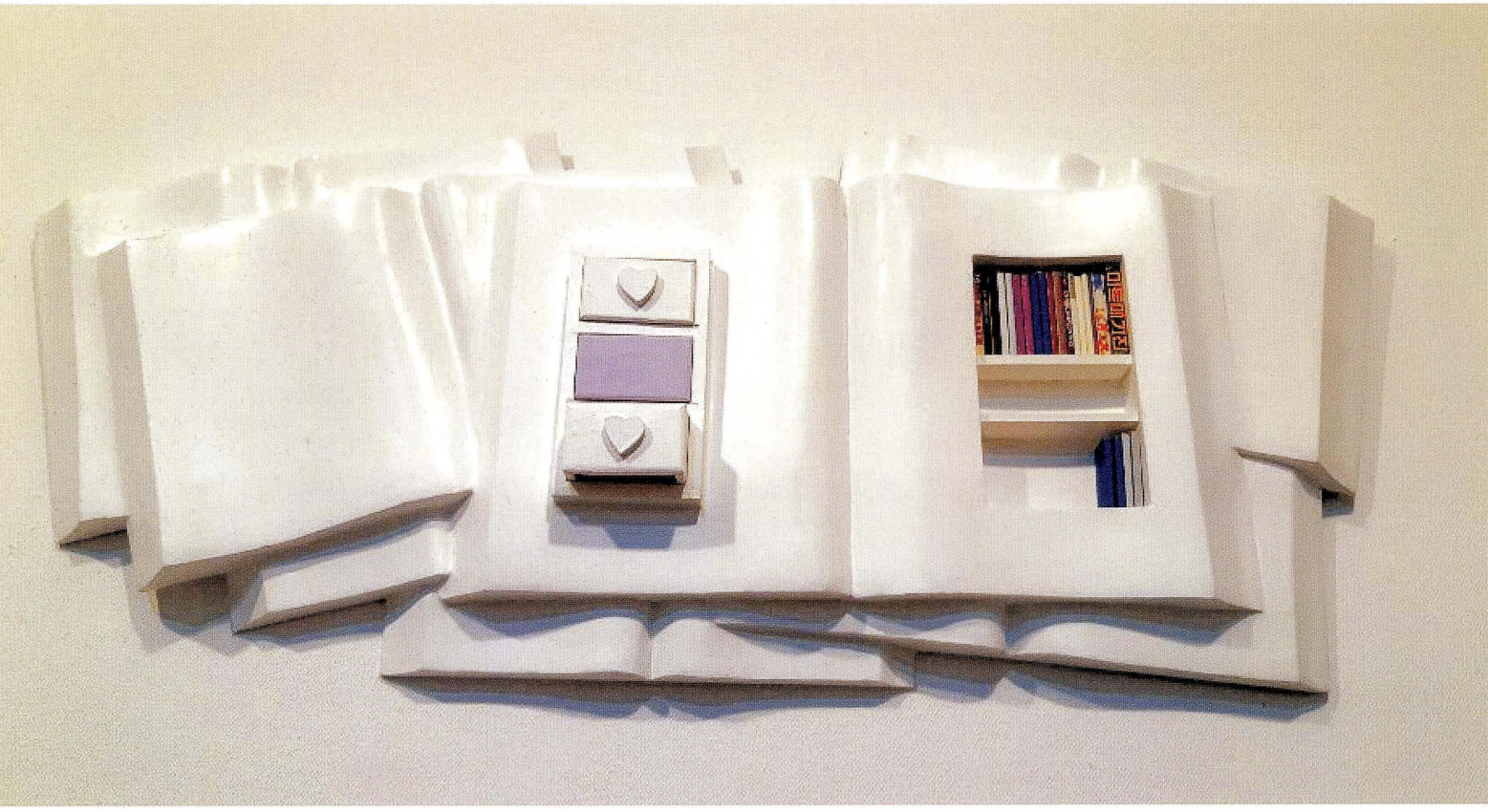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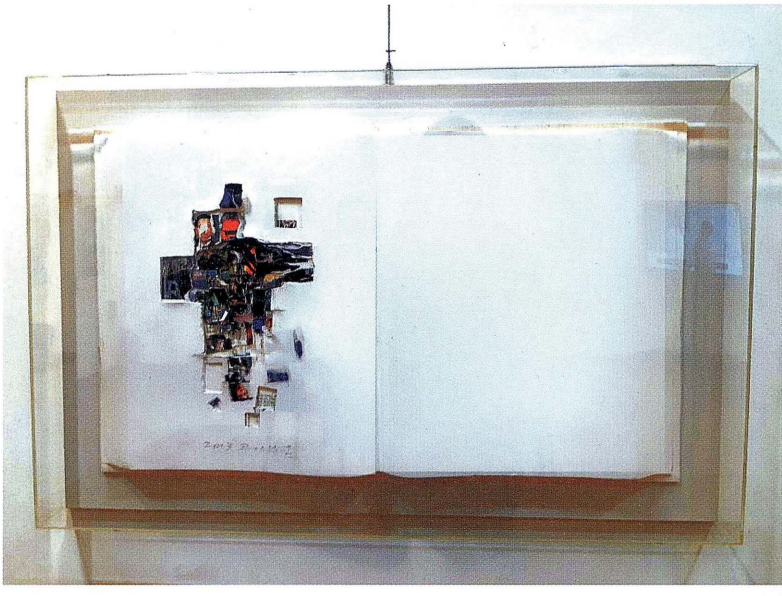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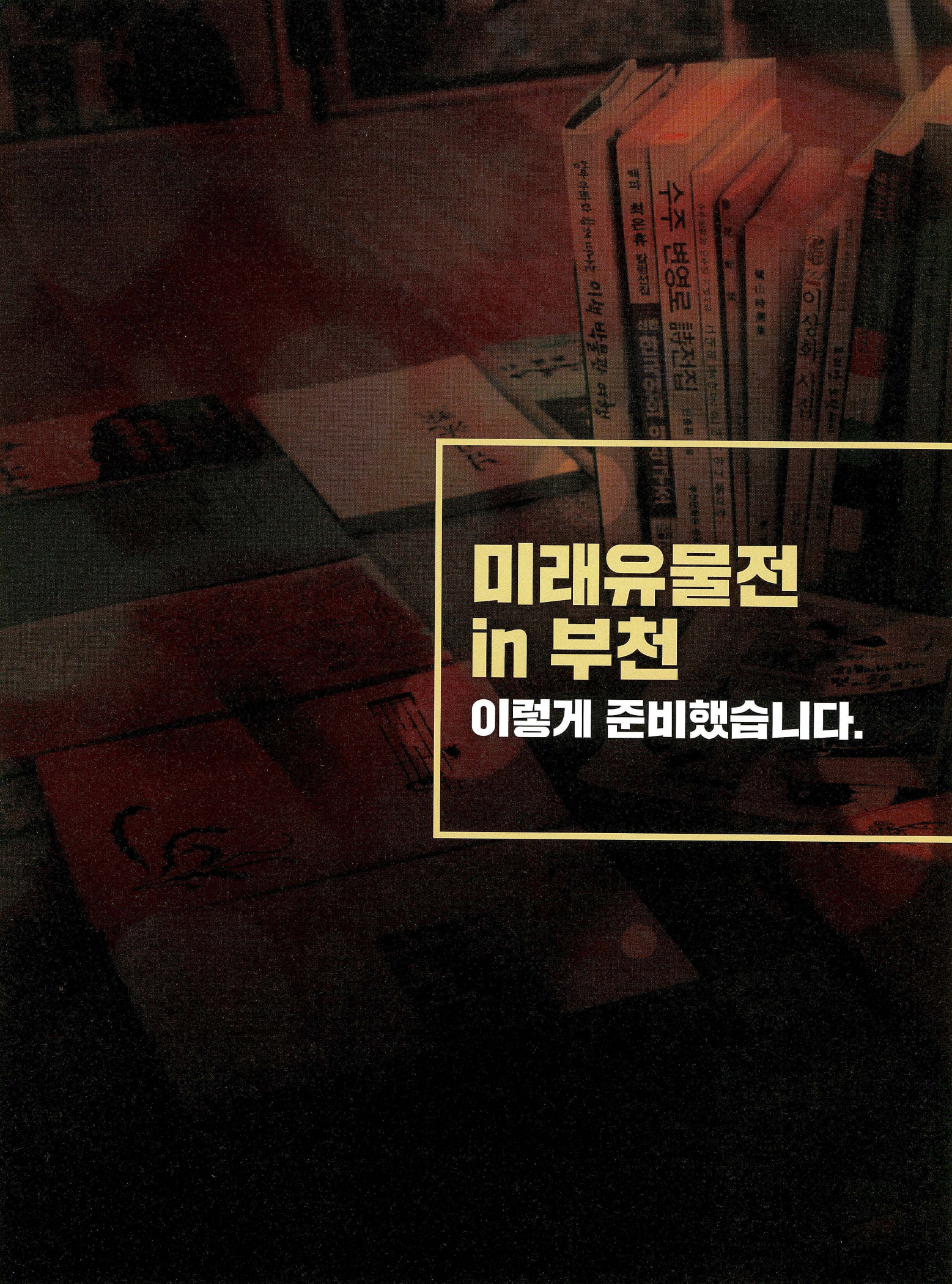












미래유물전 in 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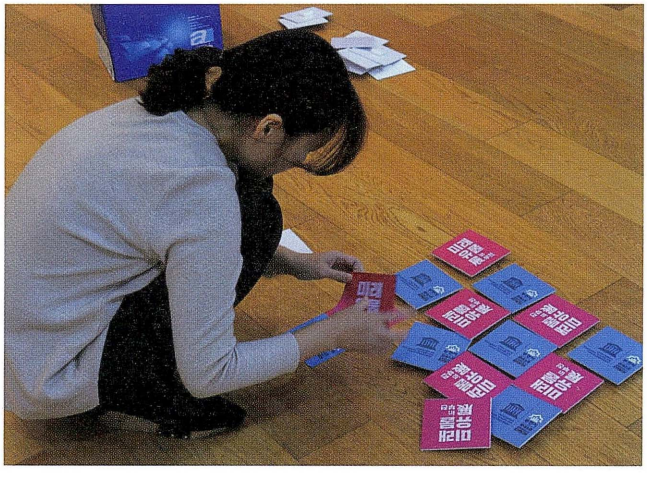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목일신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그때가 언제나 옵니까
변영로
(1897-1961)
桃花亭
Utopia
Buchreon
변영로
展


부천문화원
아리솔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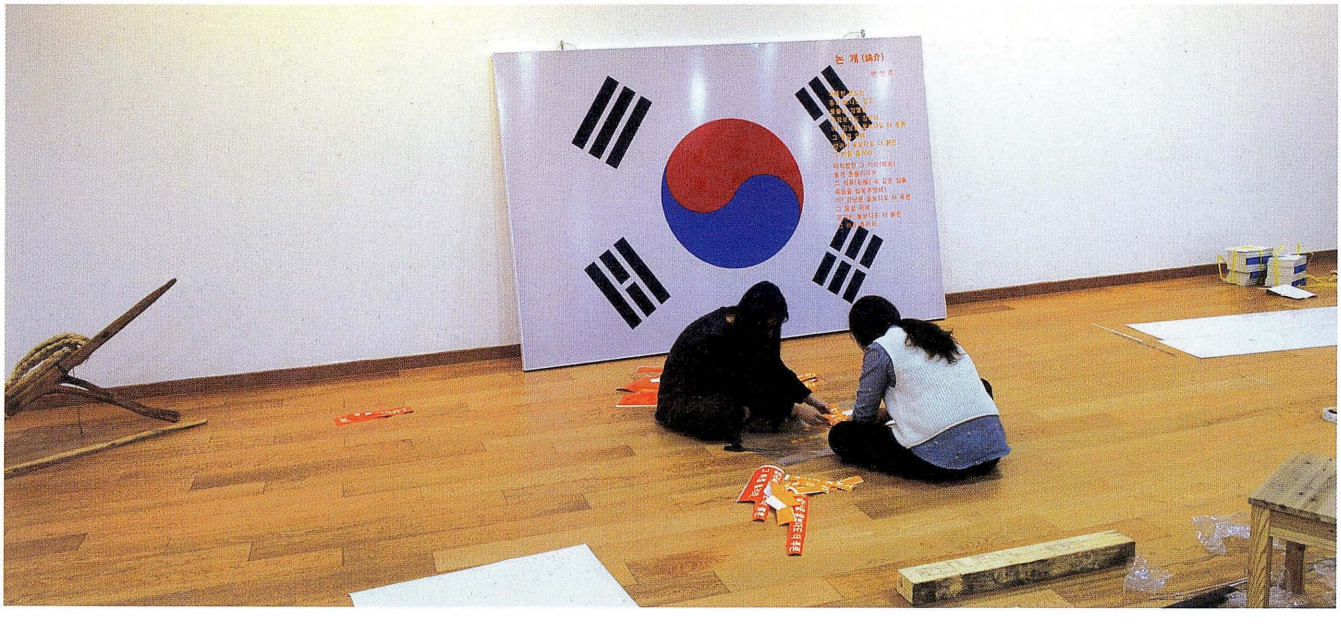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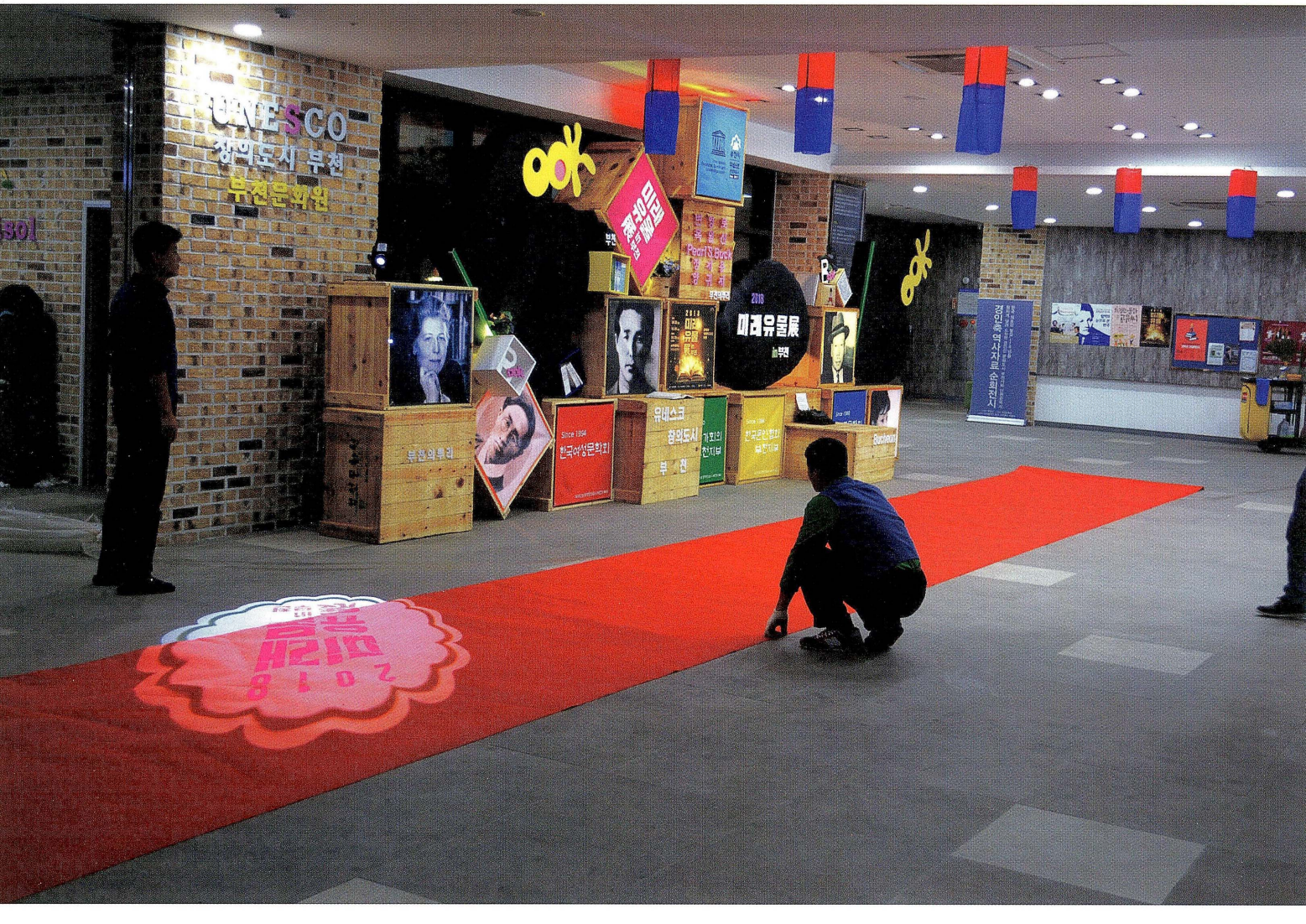

2018
미래를
유展
in
부천


사람들 풀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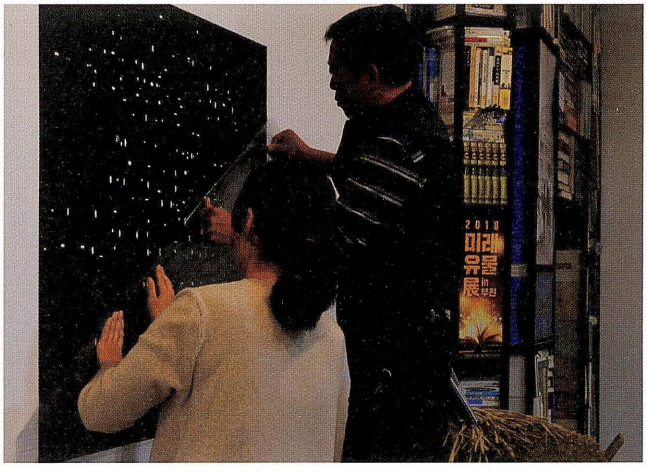

부천 확장 성장정책에 기여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2018
미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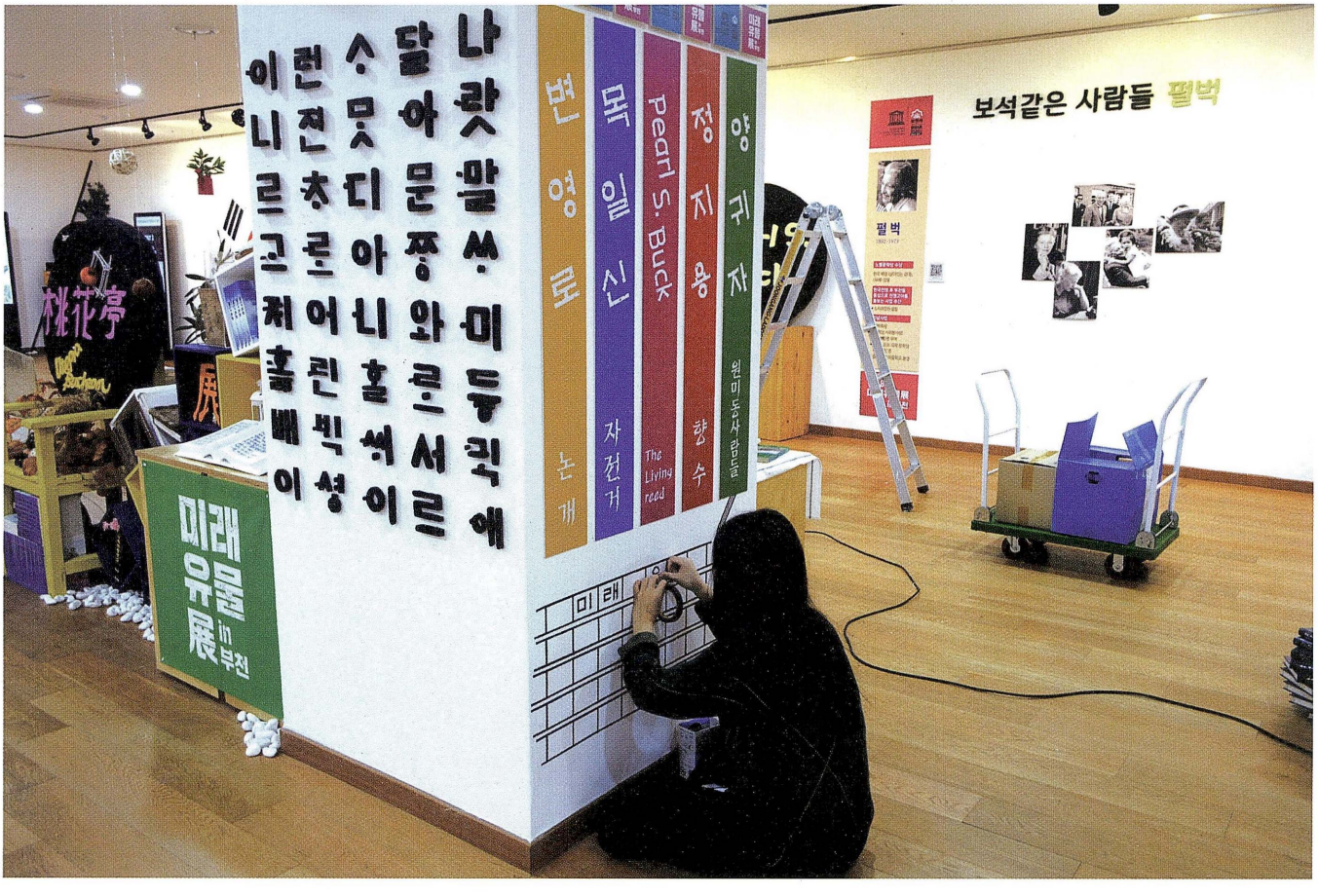



미래
유물
展 in 부천


UNESCO
창의도시 부천
부천문화원
미래유물展
in 부천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
한국여성문화회
경인축 역사자료 순회전시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나랏말싸미듕귁에
달아문짱와로서르
ᄉᆞᄆᆞᆺ디아니홀ᄊᆡ이
런젼ᄎᆞ로어린ᄇᆡᆨ성이
이니르고져홇ᄆᆡ이
변영로 논개
모일신 자걷거
Pearl S. Buck The Living read
정지용 향수
양귀자 원미동사람들
桃花亭
미래
유물
展 in 부천
보석같은 사람들 펄벅
펄벅


복일신






2018
미래
유물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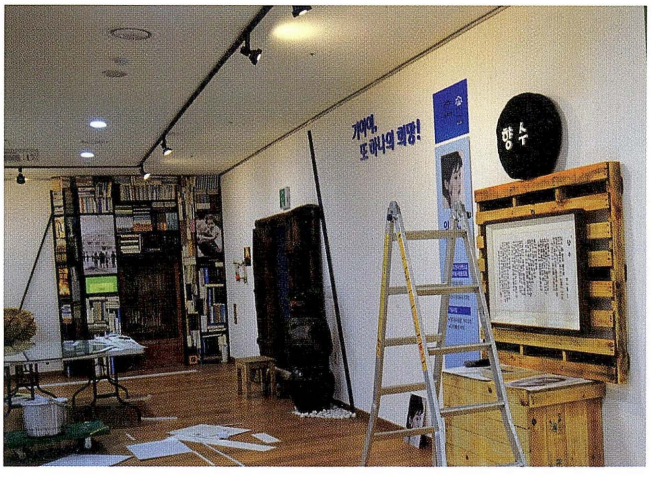







향수
정지용
1902-1950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부천 최초 성당장립에 기여
작품 다수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2018
미래유물展
in부천




가야영,
또 하나의 희망!
향수




2018
미래
유물
展
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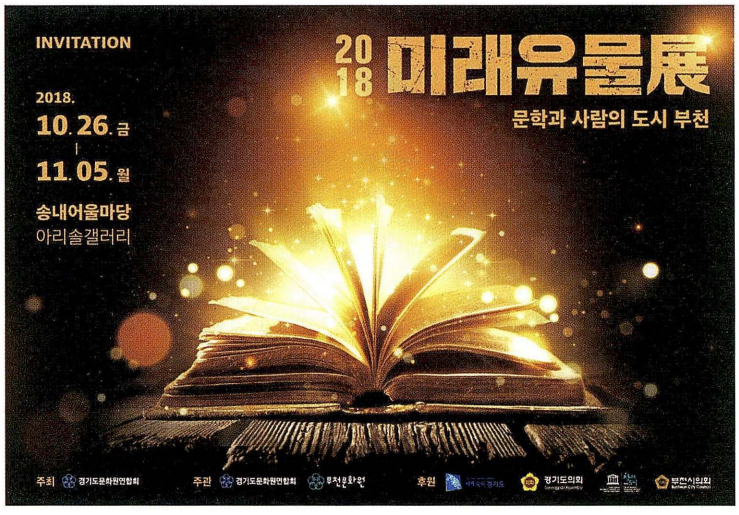



부처문화원

포스터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2018.
10.29.(월)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후원 경기도의회 부천시의회

초대장



초대의 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내 31개 시 · 군 문화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유산을 발견하고 전시하여 우리들의 유의미한 유산의 의미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유 · 무형의 유산을 축적하는 네 번째 전시를 진행합니다.

'2018 미래유물전'은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2017년 11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부천에서 '문학과 사람'을 주제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4회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1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귀빈들과 함께 부천이 어떻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었는지,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오니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올림
부 천 문 화 원 장 **박 형 재**

오시는 길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4층 T. 032)651-3739 / www.bucheonculture.or.kr

프로그램 가이드북


2018
미래
유물
展 in 부천
2018.
10.29.(월)
~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인사말



「미래 유물전」은 역동적인 생활의 현장인 지역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한 전시 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전시로 부천의 지역성을 명명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현재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았을 '바로 지금' 의 '부천'을 이번 기획전시「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을 통해 함께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부천의 현재를, 그리고 '지금 여기' 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10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환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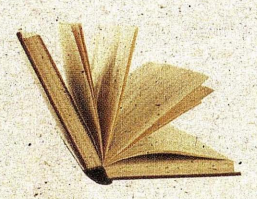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싶어지게 하는 가을입니다.

좋은 계절과 시간을 맞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문학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을 모시고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문자와 기록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와 문자가 있지만 우리에겐 세종대왕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가 모여 시가 되고 소설이 되며 그것들이 문학이라는 장르로 전세계가 공감하는 소통의 창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러한 문학의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지원, 육성해 왔고 2017년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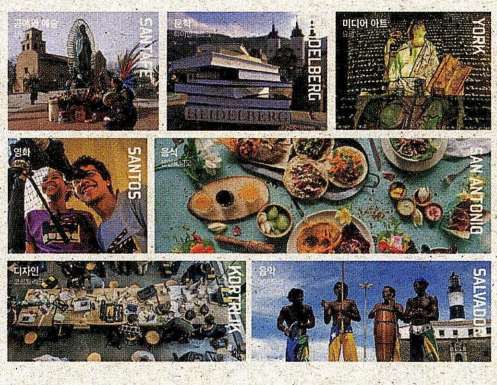
이번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은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이란 주제로 전시를 합니다. 부천에서 문학의 태동과 발아, 성숙기를 거쳐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모두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시를 위해 함께 준비해 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 10
부천문화원장 박 형 재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 세계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창의적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유연한 창의적 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도시 정책의 비전으로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각국 도시들이 연대해 경제 · 사회 ·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2004년부터 세계 각국 도시를 심사해 창의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문학, 영화, 음악, 음식, 민속과 공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지정됩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자료출처 : 부천상동도서관

이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입니다

세계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문학분야 회원도시(23개국, 28개 도시)

부천, 바그다드, 바르셀로나, 더블린, 더니든, 더반, 에든버러, 그라나다, 하이델베르그, 아이오와 시티, 크라쿠프, 릴레함메르, 류블라나, 리비우, 맨체스터, 멜번, 밀란, 몬테비데오, 노리치, 노팅엄, 오비도스, 프라하, 퀘백 시티, 레이카비크, 시애틀, 타르투, 위트레흐트, 올리야뉩스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입니다

왜 부천이었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우리 부천이 간직해온 풀뿌리 근현대 문학적 자산과, 꾸준히 추진해온 도서관 · 교육 · 문화사업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 가입이 아니라, 앞으로 창의도시로서 우리 부천의 비전과 역할입니다. 문학과 창의성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문학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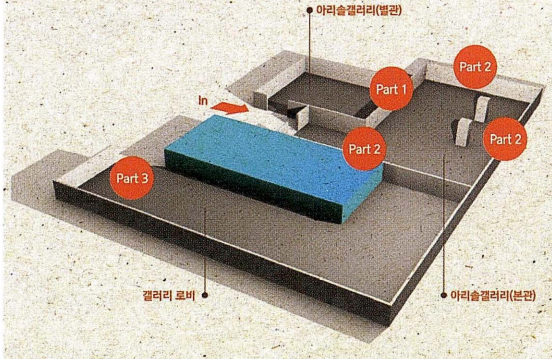
자료출처 : 부천상동도서관

2018 미래유물전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에서 가치 있는 유물들이 산재 돼 있고 그것들을 31개 시 · 군 문화원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유 · 무형의 유산에 대한 발견과 선별을 통하여 함께 하고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번사업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미래유물전은 경기도 내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유산을 발견하고 전시하여 우리들의 유의미한 유산의 의미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유 · 무형의 유산을 축적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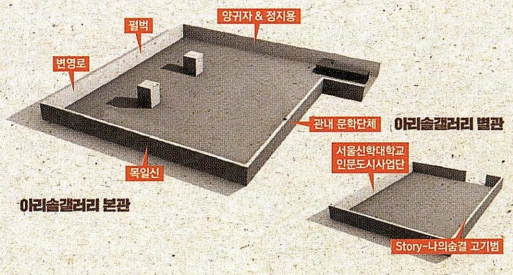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

부천시는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각각의 테마를 가진 다양한 도서관 인프라,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자유로움을 도와주는 만화와 영화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17년 11월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받았다.

부천은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자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지금도 불리는 국민동요 '자전거' 및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한국 대표 아동문학가 은성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등 수많은 문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3년 부천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인이나 작가지망생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 여러 문인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문학행사와 동인문학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 미래유물전 in 부천-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은 왜 부천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되었는지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부천문화원



Part 1.

복사골을 기억하다

부천의 문학, 어제와 오늘

복사골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개하며,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관련 단체 및 대표 인물 소개를 통해 문학창의도시 부천이 될 수 있었던 저변을 알린다.

부천문인협회

부천문인협회는 문학의 향상 발전과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 문학발전에 노력하고자 1976년 9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 디지털백일장, '포토시공모전'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학의 가치를 일깨우고 작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학의 저변화 사업으로 '부천문학'을 발간하여 지역문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복사골문학회

부천문학의 새 지평을 열고 부천시민의 문학 활동 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9년 창립되어, 1990년부터 매년 동인지인 '부천문단'을 발행하고 있다.

부천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1년 '복사골문학상'을 제정하여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일구어낸 부천 지역 문인에게 시상하여 순수문학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올해 '부천문단 31집', '부천시인 12집', '부천수필 13집', '부천아동문학 11집', '수주문학 13집'이 출간 예정이다.



부천여성문학회

부천여성문학회는 1994년 여류시인들이 마음을 모아 '부천여류문인회'를 만들어 작품합평회, '부천여류문학' 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2001년에 '부천여성문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올해 '부천여성문학'25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초대작가 초청강연, 시화전, 시낭송회, 문학기행 등 대내외적 활동으로 문학적 실력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문학의 위상을 높이며 참다운 민족 문학을 이룩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창립되었다.

2001년 '부천작가'라는 동인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천작가 18집'이 발행 예정이며, 문학인의 창작 발표 사업과 시낭송회, 전시회, 문학기행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학상, 부천시조백일장 및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여 문학인의 저변 확대와 청소년 문학 인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art 2.

복사골에 살다

부천을 사랑한 문학인

변영로, 목일신, 정지용, 펄벅, 양귀자 등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사에 남을 문학인들은 부천과 인연이 아주 깊다.



변 영 로(1897-1961)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변영로의 호 수주(樹州)를 고려시대 부천의 이름에서 따 올 만큼 부천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으며, 그의 작품은 부드러운 가락과 아름다운 서정을 위주로 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9년에는 변영로의 울곧은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주문학상을 제정하였으며, 변영로 시비, 변영로교, 기념동상이 세워지며 부천 곳곳에서 변영로를 기념하고 있다.







목 일 신(1913-1986)

'아...목일신'

자전거, 누가누가 잠자나 등의 수많은 작품을 집필한 목일신은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가로, 부천시 범박동에서 거주하며 '범박동가' 수필을 썼다.

현재 부천시에는 목일신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목일신 시비를 건립하고 심곡천 목일신교를 명명하였을 뿐 아니라 따르릉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며 목일신 선생의 업적을 기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 지 용(1902-1950)

'꿈엔들 잊힐리야'

우리나라 현대시의 아버지인 정지용은 1943년부터 3년간 부천시에 거주하며 시심(詩心)을 키웠으며,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그는 부천 최초의 성당을 창립하는데 앞장섰다.

현재 부천에서는 정지용 시비와 안내석을 세웠으며, 정지용향수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펄 벅(1892-1973)

'한국은 보석같은 나라'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은 한국전쟁기간동안 부천을 중심으로 전쟁고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펄벅이 활동한 소사희망원이었던 자리에 펄벅기념관을 세워 펄벅의 박애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양 귀 자(1955-)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

양귀자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며, 부천시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80년대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담은 '원미동 사람들'을 집필하여 '80년대 한국 단편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





Part 3.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

부천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미래 계획

01 일인일저
나의 책 쓰기 프로그램
모든 시민이 문학 창작자

02 창의프로젝트
문학, 영화, 만화의 장르간 협력

03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문학읽기로 편견과 고정관념 극복, 세계시민의식 배양,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관용적인 사회 구현

04 펄벅문학상의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분야 국제문학상
펄벅의 정예인과 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 계승
디아스포라 국제문학상으로 발전

05 미래의 도서관 이니셔티브
도서관과 문학의 국제 교류와 연구 주도
도서의 공급과 보존을 넘어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 모색 / 개발 도상국에 부천형 도서관 모형의 보급

06 문학의 글로벌 다양성 추진
회원도시와 교류 협력 사업
문화의 다양성 선도

07 이주민가족 문해사업
이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읽고 쓰기' 능력 향상

부천 문학지도



REMARKS

1~8 변영로 9~13 목일신 14~17 정지용

18~21 양귀자 22~25 펄 벅 26~29 그 밖의 부천 문인

30~34 미니책방&문학카페 / 문학산책로 35~44 만화 45~59 도서관


13 목일신 문학관
(별빛마루도서관 내)
2021년 개관예정
철로변만화벽화
10 목일신 문학마을 트릭아트월
까치울역
43
역곡역
40
임꺽정로
양귀자글비
(진달래 동산)
59 역곡도서관
(2019년 개관예정)
19
33
원미공원 문학동산
9 목일신공원
소새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
46 원미도서관
소사역
51 한울빛도서관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
18
별빛공원
심곡천
정지용 거주처
14
정지용 시비
15
정지용향수길
(2019년 완공예정)
17
21 문학꽃거리
(2021년 완공예정)
5 변영로교
42
부천역상상거리 만화조형탑
20 양귀자교
24 펄벼교
6 봄비공원
47
심곡도서관
부천역
23
22 펄벼기념관
7 달빛공원
58
해밀도서관
12 목일신교
41
왈순아지매거리
펄벼 문화거리
신중동역
아파트 만화벽화
26 소향공원
49
44
50 책마루도서관
중동역
시와 꽃이있는 거리
(석천공원 내)
4 11 16 27 28
부천문학인 시비
(중앙공원 내)
32
25 펄벼무지개길
부천시청역
53
송내 도서관
예술이흐르는강
아파트 만화벽화
34
동화도서관
44
56 57 다김도서관
송내역
38 숨속만화로
상동역
30 물길따라 공원속 미니책방
31
문학카페거리
45 상동도서관
E
N
S
W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기 획 최의열

진 행 오다예, 김대민

주 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부천시, 부천시의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 화 031-239-1020

팩 스 031-239-3785

Homepage www.kccfgg.org

Webzine www.ggjournal.or.kr

디자인·인쇄 아이삭컴퍼니

*본 도록은 2018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후원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부천시의회 Bucheon City Council